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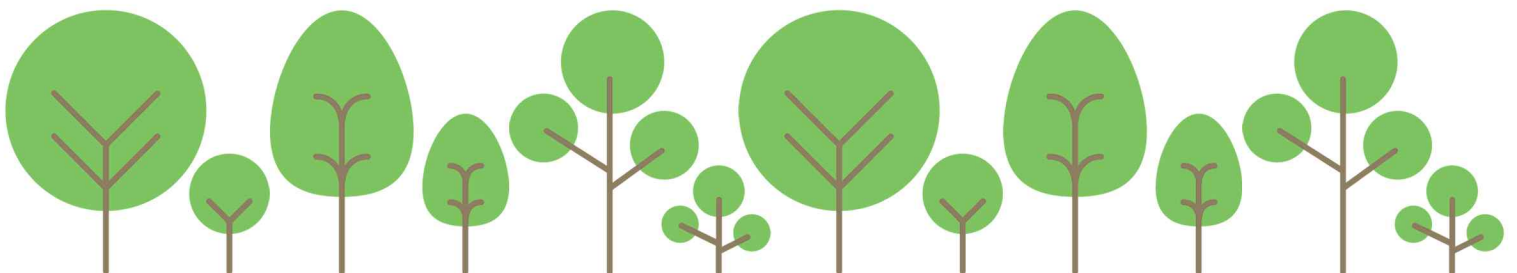


제 3회 한국교회 생명신학포럼

생명의 관점에서 본 기독교와 경제

2019년 6월 9일(목) 오전 10시 - 오후 8시 30분
총신대학교 제2종합관 카펠라홀

공동주최 : 한국교회생명신학포럼, 총신대학총학생회



제3회 한국교회생명신학포럼

생명의 관점에서 본 기독교와 경제

- ▷ 일 시 : 2019년 6월 6일(목) 오전 10시-오후 8시 30분
- ▷ 장 소 : 총신대학교 제2종합관 카펠라홀
- ▷ 공동주최 : 한국교회생명신학포럼, 총신대학총학생회
- ▷ 협력단체 : 공동체지도력훈련원, 경주숲속휴양의원, 기독교사회적기업지원센터,
기독교환경교육센터살림, 밝은누리공동체, 복내전인치유선교센터,
사단법인 인천내일을여는집, 사회적협동조합희년, 소통과대안, 오이코스학교,
우리마을연구소, 엠브리지, 한겨레신문출판사, 한국복음주의교회연합,
한국생태마을공동체네트워크
- ▷ 협력교회 : 더불어숲동산교회, 쌍샘자연교회, 에덴정원교회, 인천해인교회,
익산함께하는교회, 천봉산희년교회, 청량교회, 혜성교회, 함평전원교회

■ 제3회 한국교회 생명신학 포럼, 목차

□ 1부

05 / 전체 진행순서

06 / 초대어 글 / 생명과 평화가 충만한 하나님나라를 이루는 일에 어깨동무를

07 / 주제발표 / 하나님나라와 경제 (조성돈)

16 / “하나님나라와 경제”에 대한 논찬 (정원범)

□ 2부

20 / 사례발표① / 생명살림운동과 협동조합 (한경호)

30 / 사례발표② / 돌봄의 경제, 사회적기업 (이준모)

39 / 사례발표③ / 지속가능한 경제, 전환마을운동 (유희정)

□ 3부

46 / 북 콘서트 / 조현 기자의 ‘우리는 다르게 살기로 했다’ 북 콘서트

■ 제3회 한국교회 생명신학 포럼 순서 - '생명의 관점에서 본 기독교와 경제'

□ 생명신학포럼 - 여는 예배 및 인사말, 축하연주 (오전 10시 ~ 10시 45분)

1. 개회예배 / 사 회 정명호 목사(혜성교회)

대표기도 박준범 선교사(엠 브릿지 대표)

설 교 송준인 목사(청량교회, 총신대학교)

축 도 서종석 목사(전, 한국도농선교회 회장)

2. 환 영 / 조현수 회장(총신대학총학생회)

이박행 총무(한국교회생명신학포럼)

3. 축하 연주 / 유재아 flute 연주(파리고등국립음악원 졸, 뮌헨신년음악회초청연주)

G. Bizet - l'Entr'acte from Carmen

F. Borne - Carmen Fantasy for flute "Habanera"

I. Clarke - Great Train Race

□ 생명신학포럼 - 주제 발표 (오전 10시 50분 ~ 12시)

4. 주제발표

하나님나라와 경제 / 조성돈 교수(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 회 / 김재현 원장(KIATS)

*논 평 / 정일범 교수(교회와사회연구소)

□ 생명신학포럼 - 사례발표 (오후 1시 ~ 5시)

5. 사례발표

1) 나눔의 경제, 협동조합운동(원주생협 중심으로)

* 사 회 / 황영익 소장(우리마을연구소)

* 발 표 / 한경호 대표(한국기독교생명농업포럼)

2) 돌봄의 경제, 사회적기업(내일을 여는 집 중심으로)

* 사 회 / 구교형 상임이사(한국복음주의교회연합)

* 발 표 / 이준모 총괄본부장(기독교사회적기업지원센터)

3) 지속가능한 경제, 전환마을운동(유럽과 한국 전환마을 중심으로)

* 사 회 / 유미호 센터장(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 발 표 / 유희정 대표(전환마을 네트워크)

6. 종합토론 / 사회 이도영 목사(더불어숲동산교회)

□ 생명신학포럼 - 북 콘서트 (오후 6시 ~ 8시 30분)

7. 조현 기자의 <우리는 다르게 살기로 했다> 북 콘서트

오두막공동체(이재영장로), 사랑마을공동체(유장춘교수), 밝은누리공동체(최철호대표)

초대의 글



생명과 평화가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어깨동무를

한국사회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 새로운 경제 질서 요구, 무분별한 소비와 자본주의로 인한 환경파괴, 신자유주의 경제로 인한 빈부 양극화, 급격한 노령화 사회 진입, 심각한 청년층 취업난, 자영업의 몰락, 농촌사회의 소멸 등 경제사회적인 고통으로 사회 안전망이 무너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세계 도처에서 사회·경제적 위기와 생태 위기들이 치명적으로 뒤얽히고 있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규제되지 않는 신자유주의 체제의 금융자본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의 경제를 불안정하게 하며 국가 간에도 부익부 빈익빈을 낳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쇄적으로 빈곤한 나라의 산업체계의 근간을 흔들 뿐만 아니라 사회 안전망 프로그램을 해체시키고, 나아가 전 생태계를 착취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와 온 창조계의 보전에 대한 위협은 큰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지구 종말을 가르치는 시계는 현재 11시 58분에 서 있습니다. 미증유의 기후변화의 현상은 자연자원의 무제한적 착취와 함께 진행되고 있고, 이는 지구의 파괴로 이어지며 생태환경의 근본적인 붕괴로 이어질 것입니다. 아마도 모두가 지금 생태적인 회심을 하지 않는다면, 온난화와 생태파괴로 인하여 불가역적인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한편, 우리사회에서는 산업화, 도시화, 정보화가 주는 삶의 피로에 대한 부드러운 저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병폐로 붕괴된 마을공동체성 회복을 위해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이 대안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태문명의를 가진 소수의 운동가들을 중심으로 귀농 귀촌 운동, 생태 전환도시 운동, 대안교육공동체, 동서양을 아우르는 통합의학의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도들을 통해 가족과 마을 구성원 그리고 마을과 마을과의 관계를 복원하는 생명의 그물망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기독교가 21세기에 정신적, 영적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려면, 전 영역에서 생태적인 신앙을 재발견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의 '생태'는 단순히 자연이나 환경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창조 질서 안에서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공생 공존해야 한다는 원리를 가리킵니다. 이런 시대 정신에 걸맞게 한국교회는 생명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생명문화를 창달하는 것을 목회와 선교에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생명 중심의 하나님나라 운동이 삶의 전 영역에서 총체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전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 인간의 삶을 드리는 것이 포괄적인 의미의 선교라고 본다면, 지금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이 세계를 향하여 교회는 성경적인 응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점에 성경의 핵심가치인 '생명'을 회복하며 충만하도록 일깨우는 일보다 시급한 선교는 없을 것입니다.

모쪼록 금번 제 3회 한국교회생명신학 포럼을 계기로 창조질서와 사랑을 회복하여 생명과 평화가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함께 어깨동무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9년 6월 6일, 제3회 한국교회 생명신학 포럼 일동

하나님나라와 경제

조성돈 /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목회사회학 교수

1. 경제는 하나님의 자리인가?

사회의 전 영역에서 기독교인의 책임은 항상 질문되어 왔다. 특히 정치 영역에 있어서 우리는 침례하게 기독교인의 책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왔다. 한국교회의 입장에서는 조선시대 말기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큰 역할을 했고, 일제강점기에도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독립운동이나 민족운동이 힘 있게 이어져 왔다. 이런 전통은 해방이후 이어져온 한국사회의 불행했던 역사 속에서도 지속되어, 권위주의 정권시절 교회는 이 사회 양심세력의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감당해 왔다.

이런 기독교인의 정치적 책임의식에 비한다면 경제에 대해서 한국교회는 상당히 무관심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해 볼 때 그 무관심은 더욱 의문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물론 한국교회가 경제 전반에 대해서 무관심 했던 것은 아니다. 과거 산업화 시절 한국교회는 경제성장에 정신적 지주 역할을 감당했다. 긍정적 사고를 기반으로 하는 성공지향적 사고를 교회가 제공한 것이다. 열심히 일하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 나가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논지를 교회가 제공해 준 것이다. 그래서 경제적 성공이 곧 바로 기도응답으로 연결되어졌고, 부자가 되는 것이 축복의 최상형이 되었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은 복음은 우리에게 반드시 부자가 되어야한다고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자가 되는 것이 죄가 될 수는 없지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축복으로만 이해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는 야곱의 성공지향성이나 요셉의 환란 가운데 얻게 되는 축복에만 주목했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3박자의 축복으로 바라고, 바래왔다. 즉 경제생활을 통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신앙적이라고 믿어왔고, 그것이 기독교인의 경제생활의 전형으로 이해되었지, 경제생활에 있어서 윤리의 문제라던가, 또는 경제생활의 목적에 대해서는 외면해 왔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도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 특히 경제적 축복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 가운데 사회는 자본주의에 대해서 묻고 있다. 과연 자본주의라는 것이, 특히 최근에 이르러 신자유주의가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인가를 묻고 있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에 터한 많은 나라들이 경제적 위기에 처하게 되고, 그 여파로 유럽의 나라들이 국가파산의 위기에 몰리며, 자본주의의 대명사인 미국이 위기에 처하게 된 현재 대한민국은 과연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경제 역시 하나님의 주권이 섭리되어야 할 자리이다. 이곳 역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자리이

다. 특히 이 사회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변화와 회심을 요구하고 있는 이때에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

2. 칼뱅이 말하는 경제

경제문제에 대해서 신학은 일반적으로 침묵하고 있지는 않다. 이미 종교개혁가들도 경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입장을 내어 놓았다. 대표적으로 칼뱅은 경제 문제에 대해서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준다. 칼뱅은 경제적 활동, 즉 비즈니스를 연대나 유대(Fellowship)로 이해한다. 그가 어떤 생각으로 경제적 활동을 이렇게 이해하는지를 보는 것은 의미 있다.

칼빈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충분한 재화를 허락하셨다는 데서 그의 경제에 대한 이해를 시작한다. 그의 시편 104편 주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인간의 필수품을 공급해 주시며 생활의 일상적인 목적들에 충분하리만큼 베풀어주시길 뿐만 아니라 그 선하심 가운데서 포도주와 기름으로 인간의 마음을 흥겹게 해 주심으로써 계속해서 더욱 풍성하게 대하신다는 점을 이해하게 되길 원한다. 물론 본성은 마실 물로 확실히 만족할 것이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빵(양식)만 먹어도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누군가가 말하듯이) 흘러넘치는 자세로 포도주와 기름을 덧붙여 주신다”

보통 경제라고 하는 것을 희소성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일반적인 이해와 다르게 칼뱅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충분한 재화를 허락하셨다는 데서 출발을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재화를 인간이 적절히 배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평등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칼빈은 그것을 인간의 죄로 보았고 부패라고 정확히 정의 내리고 있다.

“우리가 서로간의 조화를 더욱 힘써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상대를 자기 몸처럼 더욱 허물없이 포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의 근원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인류를 받아들이고 살게 하기에 충분하도록 땅(지구)의 범위를 정해놓으셨다고 확실하게 결론을 내려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의 적절함에 반대되는 불평등은 다름 아닌 죄에서 비롯되는 부패일 뿐이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축복은 넘쳐서 모든 곳에서 땅은 거주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으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구의 어느 부분에서 자기들이 거할 집을 찾을 수 있도록 하신다.” (창세기 1:28에 대한 주해)

이러한 전제 하에서 칼빈은 비즈니스를 경건한 생활이라고 주장한다.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고 있는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대한 주석에서 칼빈은 경건한 자들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교제를 유지시켜야한다고 한다.

“자연적인 선물들과 성령의 선물(은사)들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점이 없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음을 인정하지 못할 능력이나 기술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유용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교역(trading)에 종사한다고 말할 수 있다. 경건한 사람의 삶을 교역에 비유하는 것은 정당하다. 이는 경건한 사람들이 서로 공

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 간에 교환하고 물건을 나누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 사람이 자기에게 할당된 직책, 그 소명 자체, 적절하게 처신해야 하는 권력 및 여타의 선물(은사)들을 이해하는 일은 상품(merchandise)과 같다. 그것들의 용도나 목적은 사람들 간에 자연적인(natural 본성적인) 상호 교제(Fellowship)가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¹⁾

여기서 그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인 교제에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 영어로는 Fellowship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단어는 원어로 본다면 코이노니아이다.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무엇보다도 공동체라는 의미가 있다.

이 펠로우십이라는 단어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코이노니아 사상과 맞닿아 있다. 이것은 공동체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것이다. 보통 우리는 교제라는 한국어로 번역하고 있는데 그렇게만 보기에는 그 풍부한 뜻을 다 담을 수 없다. 사도신경에서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고백한다. 이것을 그리스어로 보면 ‘코이노니아 하기온’이고 라틴어로 보면 ‘communio sanctorum’이다. 이를 다시 직역한다면 거룩한 자들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공동체를 영어로 보면 커뮤니티(Community)라고 한다. 바로 라틴어 ‘communio’에서 나온 단어이다. 교회는 바로 이 거룩한 자들의 공동체이고, 그것을 그리스어로 할 때에 거룩한 자들의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이다.

칼뱅의 특별함은 바로 경제적 성과를 서로 나누는 것이 코이노니아라고 보았고 경제는 바로 이러한 교제의 도구로 보았다는 것이다. 바울신학에서 이 코이노니아 사상은 핵심적인 부분이다. 단순한 교제의 의미를 넘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이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되는 일’이 바로 이 코이노니아이다. 이것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 신비함으로 연합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념에서 성찬식의 의미가 담긴다. 라틴어로 성찬식을 코뮌리오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렇게 성찬식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는 것, 코이노니아가 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형제, 자매들과 내가 한 공동체, 즉 코이노니아가 되는 것이다. 칼뱅은 바로 이 경제를 통하여 인간의 이러한 연합됨, 동참함, 함께 되는 일, 또 그러한 함을 통해서 공동체(Community)를 이루는 것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3. 하나님 나라의 실천신학적 이해

하나님 나라를 실천신학적 관점으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그 나라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이 이루어지고, 운행의 원리가 될 때 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깝게 가는 것이라고 믿는다. 그 가치는 성경에서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것은 사랑, 정의, 평화라고 생각한다. 물론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성경에서 다른 가치들이 중요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가치는 이것으로 본다.

1) 칼빈의 글이나 그의 번역은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가 2009년 9월 11일 개최한 ‘칼빈이 사회관과 경제에 대한 이해’라는 열린대화마당에서 두크로브(Ulrich Duchrow) 교수가 발표한 ‘사회와 경제에 대한 칼빈의 이해’라는 글에서 가져왔다.

첫째로 사랑은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율법에 정리해 준 것에 기준할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마22:36-40)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보내 주신 것과 같이 우리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은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계명이다. 수없이 들었던 이야기이면서 항상 우리는 거기서 실패한다. 이 사랑은 먼저 형제들에게지만 이 인류 모두에게 펼쳐가는 사랑이라는 믿는다.

둘째는 정의이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의는 의의 세력이 불의를 이기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의와 불의를 가르는 것 자체가 이미 인간의 교만에 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바르고, 누가 바르지 않다고 할 수 있겠는가.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이 땅에 가난한 자들, 사회적 약자들을 돌아보는 것이다. 이미 공동체를 논하면서 언급한 바 있지만 성경의 중요한 관점은 약자에 대한 배려이다. 구약은 바로 '고아, 과부와 나그네, 그리고 장애인'들에 대한 지극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고, 그들에 대한 보호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틀어서 '약자보호법'이라고 하고 있다.

이 근본적인 관심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다. 자신의 자녀된 자들, 그 중에서도 핸디캡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성경을 꿰뚫고 나오는 핵심적인 주제이다. 그것이 개인적인 장애이던 사회적인 장애이던, 이 사회로부터 천대받고 소외당한 자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자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들에 대해 하나님은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들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신다.

셋째는 평화이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평화, 즉 샬롬은 창조의 질서가 유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그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고 유지되는 것이 바로 샬롬이다. 세계는 아담의 타락이후 이 질서를 잃어 버렸다. 낙원을 떠난 형제들은 서로를 미워하며 살인을 시작했다. 이 탈샬롬의 세계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세상은 거짓 샬롬에 속고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를 만날 때 샬롬이라고 인사를 나눈다. 서로에게 평화를 기원하는 것이다. 중동의 이슬람 사람들도 서로를 만날 때 샬람이라고 인사를 나눈다. 조금 다르지만 서로에게 평화를 기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전쟁이 극심한 곳이 바로 이 중동지역이다. 이것이 거짓 샬롬의 결과이다. 자기들만의 샬롬, 즉 평화는 진정한 샬롬일 수 없다. 자기들의 샬롬이 주변에는 폭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탈샬롬의 세계가 보여주는 가장 극명한 현실이다.

진정한 샬롬은 창조된 것들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존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에 피조물들이 겸손히 순종하는 것이다. 그 가운데 강자와 약자의 구별은 없어지고 질서 안에 모든 것들이 평화로이 공존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가치들이 바로 이 땅에서 실현되는 것이다. 경제 역시 예외 없이 이 가치들이 실현되어야 할 곳이다. 신자유주의의 거친 경제세상에서 효율과 경쟁이 우리를 압박하고, 경제적 성공만이 성공의 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사랑과 정의, 평화의 가치를 들어 올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을 가진 우리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다.

4.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제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첫째는 윤리적인 측면으로 경제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제시하며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는 교회가 공동체로서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의 경제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다.

먼저는 경제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제시하며 함께 논의하는 틀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공산주의에 대한 승리 이후 급격하게 진전되어 가고 있다. 알려져 있다시피 신자유주의가 득세하며 무한경쟁을 그 중요한 덕목으로 삼아 효율과 이익으로 사회적 양극화를 이끌어 오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사회는 1997년 국가부도 사태를 겪으면서 기존에 간직했던 최소한의 가치마저 잃어버리고 말았다. 한국사회는 이미 급격한 경제성장을 거치면서 경제중심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아왔다. 그런데 IMF 구제금융 사태를 겪으면서 적자생존의 법칙이 정당화되어지고 더욱 거칠게 '돈' 중심의 사회가 되고 말았다.

이러한 한국사회의 모습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자살'이라는 사회적 현상이다. 1998년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평균 10명 이하를 밑돌았다. 그런데 1998년 약 18명으로 치솟았다. 어쩌면 그 때를 기억해 보면 그러만한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후 자살률은 안정을 찾아가는 듯하다가 2002년 이후 치솟기 시작해서 자살률이 가장 높았던 2011년 31명까지 올랐다. 즉 14년 만에 약 3배까지 오르게 된 것이다. 여자보다는 경제활동을 더 많은 경제활동을 하게 되고 가정의 경제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남성의 자살률이 보통 2.5배 가량 높게 나타난다. 거기에 연령대별로 보면 자살은 40대와 50대, 더 한다면 30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즉 자살은 경제문제에 가장 민감한 30-40대의 남성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 나라가 어디에 삶의 중심을 두고 있는지를 극렬하게 보여 주는 실례라고 할 수 있다. 즉 사회는 생명의 가치보다도, 가정의 사랑의 가치보다도 돈이 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곧바로 생명을 포기하는 일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러한 가치의 혼란은 현대사회로 들어오면서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 소위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되면서 기술의 발전과 경제질서의 혼란은 우리로 정신을 못차리게 하고 있다. 경제에 새로운 플랫폼이 생기면서 그 발전 양상이 기존의 것과는 아주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경제의 모습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비트코인이다. 비트코인은 2008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에게 의해서 제안되고 시작되었다.²⁾ 블록체인(Blockchain)이라는 개념을 통해 가상의 화폐를 생성하고 유통해낸 것이다. 이것이 불과 10년 전에 시작을 한 것이다. 비트코인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현재 전 세계적인 가상화폐로 자리를 잡았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가상의 화폐를 누가 만들었는지를 모른다는 것이다.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름은 있지만 그가 누구인지를 모른다. 그가 개인인지 어떤 단체인지도 알려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발전 과정에서 이 부분을 누구도 컨트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느 국가도, 어느 은행도, 어느 기관도 관여되어 있지 않다.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플랫폼 안에서 연결된 각자의 컴퓨터에서 작동하며 신뢰를 만들고

2) 돈 탬스콧, 알렉스 탬스콧, 박지훈 역, 『블록체인 혁명』 (서울: 을유문화사 2017) 25.

화폐의 기능을 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10년 만에 세계가 사용하는 화폐가 되고 국가적 개입조차 불허하는 특별한 자리를 하게 된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보면 최근 10년 사이에 이러한 네트워크와 블록체인을 통해 생겨난 세계적인 기업들이 상당수 있다. 예를 들면 Airbnb(2008), Uber(2009), Instagram(2010) 등이다. 불과 10년도 안 된 기업이, 그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기업에 의한 것도 아닌데 쉽게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만들고 세계를 상대로 활동을 하고 있다. 조금 더 범위를 넓힌다면 현재 우리가 광범위하게 쓰고 있고,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깊이 들어와 있는 페이스북은 2004년에 19살이던 한 청년에 의해서 설립되었다. 또 몇 년 전 우리나라 정치에 큰 영향을 끼쳤던 트위터는 2006년에 두 명의 벤처기업가에 의해서 설립되었다.

이러한 기업들의 등장과 발전이 놀라운 것은 먼저는 속도이고, 둘째는 그 과정이다. 알지도 못했고 그 시작도 미미했던 한 기업, 또는 한 개인의 제안³⁾이 불과 몇 년 사이에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다. 그러한 기술, 또는 제안에 대해서 사회가 검증하고 가이드를 내놓기 이전에 이미 대중화가 되어 버리는 그 속도에 대해서 놀라워하고 있는 것이다. 즉 사회가 새로운 기술이나 제안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논의를 하고, 위험과 불안한 부분을 발견하여 규제를 정하고 가능성을 만들어 가기도 전에 전 세계적으로 나아가 한 국가의 범위를 넘어 버리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한 가지를 쫓아가지도 버거운데 그것이 완성되기도 전에 새로운 기술이나 제안이 등장하여 모두를 혼란에 빠뜨린다는 것이다. 둘째 이것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불현 듯 한 기업이나 개인에 의해서 갑자기 나타난다는 것이다. 보통 다른 사업들을 보면 전통적인 기업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발전해 왔다.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그러한 기술이나 제안과 관련하여 저변이 마련되고, 그러한 것의 총화된 기술이 결과되어졌다.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과정들을 뛰어넘어 버리는 것이다. 상상하지 못했던 한 기술이나 제안에 의해서 갑자기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겨나고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다. 즉 기존에 존재했던 그 과정들이 생략되어진 것이다.

이러한 속도와 규제될 수 없다는 공포는 인간을 혼란과 불안에 빠뜨린다. 예측되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불안, 변화의 속도를 쫓아갈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불안, 현재의 내 정황이 유지될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 등이 찾아오는 것이다. 이러한 심리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사회의 변화 역시 급격하게 진행될 것이다. 그러면 개인들의 인식과 사고의 변화, 또 그에 따른 윤리적 준거의 변화 역시 빠르게 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제 경제는 우리 사회의 한 분야로 남아 있을 수는 없다. 공동체가 함께 미래를 논해야 한다. 경제가 어느 순간 위험사회의 가장 큰 폭탄이 될 수 있기에 공동의 책임을 나눌 수 있는 준거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경제를 윤리의 장으로 이끌어 와야 한다. 구체적인 규제나 국가적 제재는 쉽지 않을지 몰라도 적어도 가장 기본적인 윤리적 프레임을 형성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효율과 이익이 아니라 사랑과 정의, 평화의 가치를 경제와 미래에 어떻게 적용해 나갈 수 있을지를 나누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경제에 있어서 협의과정(Konsultationsprozess)가 필요하다.

독일은 사회시장경제(Soziale Marktwirtschaft)라는 독특한 경제체제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시장의 효율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놓치지 않는 균형 있는 경제체제를 추구하고

3) 제안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발명이나 발견은 한 개인이나 특정 단체에 의한 것이지만 이것은 누군가 발명하고 발견한 것에서 시작해서 네트워크에서 발전해 나가기 때문이다. 즉 완성된 형태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작게 시작했는지라도 네트워크 상에서 완성되어져 가고, 성장해 나간다는 의미이다.

있다. 사회시장경제에는 여러 특징들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은 협의과정(Konsultationsprozess)의 형성이다. 사회시장경제는 시장과 사회라는 두 개의 축으로 운영된다. 이 두 부분이 그러나 그렇게 잘 융합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시장과 사회라는 이 두 개념이 동일할 수 없으며, 어떻게 보면 서로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 둘은 자유와 정의로, 또는 자유와 책임으로 그 가치를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가치가 공존하며 서로를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 내는 것이 사회시장경제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시장경제를 독일에서 자리 잡도록 한 에르하르트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자유는 책임과 연대와 뿌리가 없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유와 책임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제도(Ordnung)가 필요하다. 나는 원칙적으로 자유와 제도라고 부르고 싶다. 왜냐하면 책임은 나에게 제도라는 개념으로, 특히 윤리적 제도라는 개념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만약에 자유가 책임이라는 제도 안에 있다면, 우리들은 이러한 가치들에 올바른 기독교적이고 사회정치적인 자리를 찾은 것이다. 의심의 여지없이 자유는 스스로 작동한다. 이로써 제도가 없이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는 거꾸로 제도가 단지 외적인 틀이나 형태로 이해될 때 쉽게 강요로 받아들여지는 것과 같다.”⁴⁾

에르하르트가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유와 책임은 서로의 보완이 없을 때 잘 못된 방향으로 가기 쉽다. 따라서 이 둘이 제도, 또는 질서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어떻게 자유가 책임의 틀 안으로 들어오도록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것이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합의할 수 있는 가치들 안으로 들어와 사회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어가는 과정을 만들어 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에르하르트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독교적이고 사회정치적인 자리를 찾아 갈 수 있겠는가.

그것은 경제를 사회문화적 콘텍스트 안에서 이해할 때 가능하다. 사회에 일반화된 사고와 행동유형에 따른 규범 안에서 경제문제를 이해하는 것이다.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장이라고 하는 효과적인 도구가 정해진 역사적 정황 속에서 어떤 정치적 전제들을 가져야하는지, 어떤 가치관들을 고려해야하는지, 그리고 어떤 시민사회적인 상황들 가운데 이해되어야하는지를 명확히 할 때 정해진다. 이러한 것들을 정해주고 찾아가는 과정을 독일에서는 협의과정(Konsultationsprozess)이라고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경제에는 정의에 기반된 정치적인 의도가 전달되고, 시민사회의 다양한 요구들과, 독일의 경우이기는 하지만, 교회의 사회윤리적 가르침들이 전달되는 것이다. 또 이러한 것들이 제도(Ordnung)나 틀지움(Rahmenbedingung)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 가운데 경제는 공동체라는 가치와 목표 안으로 수렴되는 과정을 거친다.

한국사회는 경제문제에 가장 큰 덕목을 규제완화와 자율로 보는 것 같다. 그것은 친기업적인 경제기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경제가 잘 되면 파이가 커지고, 모두가 나누어 먹을 수 있는 몫이 더 커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그런데 우리의 경험은 결국 이러한 구조가 가져오는 폐해가 큼을 알려 주고 있다. 결국 성장중심의 경제구조가 윤리를 잃어버리고 난 후에 사회적 책임을 감당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지금이라도 경제를 윤리의 장으로

4) Sabine Vogel, Richard Reichel, Anderea Schneider, Soziale Marktwirtschaft. Damals und Heuter, Berlin: Konrad Adenauer Stiftung 2007. 14.

끌고 와야 한다. 가진 자의 경제와 가진 자를 위한 경제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나눌 수 있는 경제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경제적 주체를 넓혀 나가야 한다. 단순히 기업으로 대표되어지는 시장과 국가라는 두 트랙이 아니라 시민사회와 윤리적 주체들까지 함께 하며, 더 나아가 경제적 혜택을 나누어야 하는 모든 이들, 스스로 경제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이들까지 포함하는 경제적 민주주의에 기반한 협의구조를 이루어야 한다. 바로 이곳에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경제적 약자를 대변하며 사랑과 정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것이 칼뱅이 이야기하는 공동체의 관점에서 코이노니아의 경제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이것이 경제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둘째는 교회가 공동체로서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의 경제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다. 현재 한국 사회는 기존의 경제체제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변하고 있다. 끝까지 달려 나간 이 시장경제의 사회에서 돌아서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곳곳에서 ‘대안’을 찾고 있다. 가장 먼저는 교육에서 대안학교들이 생겨나고 있다. 경쟁의 가장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기존의 학교를 벗어나서 다른 모양의 교육을 추구하는 것이다. 또 대안경제에 대한 생각도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실험적 실천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복지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앞 다투어 복지혜택을 늘리고 있다.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복지의 범위는 넓어지고 혜택은 커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모두가 내는 세금에 근거한다. 즉 공동체 중심의 경제와 체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는 다양한 형태로 공동체 중심의 경제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을 이끄는 곳도 있고, 농촌이나 어촌에서 지역공동체를 이루어 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도 있다. 또한 지역공동체 운동을 통해서 경제와 연관된 일을 감당하기도 한다. 거기에 청년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 카페를 운영하는 곳도 있다.

이러한 것이 가능한 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자본 덕이라고 할 수 있다. 교회는 먼저 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 기존에 교회를 중심으로 가지고 있었던 공동체 의식을 넓혀 가면 바로 그곳에 사회적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다. 특히 약자에 대한 관심은 가장 기본적인 자리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구호를 넘어서 경제적 과정에 참여시켜 나가는 것까지 포함한다면 교회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또 교회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 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가치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미 언급한 하나님 나라이 가치들을 이 사회의 언어로 소통하며 공유해 나갈 수 있고, 함께 실현해 나간다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는 헌신된 인적, 물적 자원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교회는 그 동안 이러한 자원을 가지고 지역사회와 한국사회를 넘어 세계적인 구호활동 및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이제 이러한 자원들을 동원하여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경제를 현장에서 실현해 나가면 좋을 것이다.

이미 교회는 각 곳에서 이러한 일들을 성공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협동조합이 등을 통해 일해 왔다.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경제를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가치 중심의, 윤리 중심의 경제를 이 사회로 확산해 나가는 일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5. 결론

한국교회는 그 동안 경제적인 면에 대해 이중적인 입장을 가져왔다. 경제적 성공에 대해서는 지극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마치 그를 알지 못한다는 듯이 외면해 온 것이다. 그러다 보니 부자가 되는 실용적인 면에서는 발전된 신앙의 양태를 가지고 있지만 윤리적인 면에서는 늦되는 아쉬움을 가져왔다. 그러나 경제 역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구역임은 틀림없다. 특히 칼뱅이 지적한 바와 같이 경제는 하나님이 주신 재화를 나누는 코이노니아의 중요한 도구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경제를 외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면에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가진 교회가 두 가지 면을 채워나가야 한다. 먼저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곳에서 함께 공유해 나가는 일을 하는 것이다. 변화되는 이 사회에서 절대적 가치의 담보와 함께 그 가치를 나누고 세워나가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올바른 가치를 세우고 나누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경험을 이 사회와 나누고 확산해 가는 것이다. 특히 이윤과 이익, 그리고 효율과 경쟁으로 돌아가는 이 사회에서 기준을 세우고, 경제를 그렇게 이끌어 가는 것 역시 교회가 할 일이다. 이 땅에 생명과 사랑, 정의와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한다.

조성돈 교수: 연세대 신학과를 졸업하고 Kiel대학교 신학 석사, 독일 Marburg대학 신학 박사 취득한 그의 시선은 늘 사회를 향해 있었다.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이자, 목회사회학 연구소 소장(<http://www.psyk.co.kr/>)으로서, 그리고 라이프호프 기독교 자살예방센터 대표(<http://www.lifehope.or.kr/>)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목회사회학-현대사회 속의 기독교회와 생활신앙', '교회 다니면서 그것도 몰라?', '시민사회 속의 기독교회'(공편), '그들의 자살 그리고 우리'(공저) 등이 있다.

“하나님 나라와 경제”에 대한 논찬

정원범/대전신학대학교 교수

I. 논문의 개요

조성돈 교수의 논문 “하나님 나라와 경제”는 크게 네 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 1. 경제는 하나님의 자리인가? 2. 칼뱅이 말하는 경제 3. 하나님 나라의 실천신학적 이해 4.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제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등이다.

1장에서 필자는 산업화시절, 한국교회는 성공지향적 사고를 제공하였으나 오늘날 저성장 시대, 신자유주의 시대를 맞이하여 과거의 성공지향적 사고, 3박자 축복이 더 이상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시대를 맞이하였다고 지적하였고, 한국교회가 그동안 정치적 책임의식을 가진 것에 비교해 볼 때 경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했다는 지적을 하면서 경제는 하나님의 주권이 섭리되어야 할 자리임을 주장한다.

2장에서 필자는 시편104편 주석, 창 1:28 주석, 마 25장 주석 등을 통해 칼뱅의 경제관을 소개하는데 그가 소개하는 칼뱅의 경제관은 다음과 같다: 1. 하나님은 인류가 살아가기에 충분한 재화를 허락하셨다. 2. 불평등은 죄에서 비롯되는 부패이다. 3. 재화의 교환(교역), 나눔 등의 경제활동은 사람들 간에 자연적인 상호교제가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하기 위한 것(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3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정리하였는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크게 사랑(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정의(이 땅에 가난한 자들,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것), 평화(창조의 질서가 회복되고 유지되는 것)라고 지적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가치들이 이 땅에서, 곧 경제 영역에서 실현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4장에서 필자는 하나님 나라를 경제 가운데 실현해가기 위해 두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하였는데 첫째는 경제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제시하며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가는 것이고(예: 독일의 사회시장경제 체제에서 협의과정을 형성해가는 것, 사회시장경제의 두 개 축: 시장과 사회, 자유와 정의, 자유와 책임의 공존), 둘째는 교회가 공동체로서 실제적인 하나님나라의 경제를 실현해나가는 것(예: 공동체 중심의 대안경제/협동조합, 사회적 기업)이라고 주장한다.

II. 하나님나라 경제(하나님의 경제) 추구를 위한 보론

1. 신앙과 경제/ 경제와 윤리

경제문제는 신앙의 문제이고 윤리의 문제이다. 신앙은 경제와 분리될 수 없고, 경제는 윤리와 분리될 수 없다. 왜냐하면 경제와 분리된 신앙은 경제영역에서의 하나님 주권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윤리와 분리된 경제는 경제의 목적인 인간에 대한 봉사를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⁵⁾ 신앙과 경제, 경제와 윤리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5) 정원범, 『가톨릭사회윤리와 인간존엄성』 (서울: 한울출판사, 2002), 144

1) 성경에서 인간의 경제활동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경작하고 관리하도록 위탁받은 청지기의 직분을 수행하는 행위이다. 2) 인간은 일하면서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인간의 노동은 개인의 삶과 유익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과 선을 위해 쓰여져야 하며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 3)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를 증거하는 성경말씀이 경제문제에 관하여 일관되게 강조하는 점은 가난한 자들과 힘없는 자들을 돌보고 그들의 권익을 옹호하라는 교훈이다. 4) 성경은 가난한 자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경제활동과 제도가 정의롭고 선하게 운영되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다. 성경은 인간의 근면한 노력을 통한 영리활동이나 물질의 획득을 긍정적으로 보지만 부와 재산을 지나치게 탐하며 돈과 재물을 우상처럼 섬기는 행위를 비윤리적, 불신앙적 행위로 보며 물신숭배적 죄악으로 본다.⁶⁾

2. 하나님 나라의 의미

예수님이 구현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첫째로, 하나님 나라는 미래적 나라이며 동시에 현재적 나라이다.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나라는 미래적이며 초월적인 나라이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이 땅 위에 현존하는 현재적인 나라이다. 이 사실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의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도 확인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마 6:10 에서 분명히 확인된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서와 같이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나라이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이다. 이사야서 탈군(히브리 성서의 아람어 번역본)을 보면, 그곳의 네 개의 본문이 직접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사야 24:23의 탈군은 “만군의 주께서 시온산...에서 통치하실 때”를 “만군의 주의 나라가 시온산에 나타나실 것이요”로 바꾸어 쓰고 있고, 이사야 52:7, “네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다”의 아람어 역은 “너의 하나님 나라가 나타났다.”로 바꾸어 쓰고 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통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그것은 장소라기보다는 행위를 의미했고, 우리를 구원 또는 해방하기 위한 하나님의 개입을 의미했다.⁷⁾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유와 해방, 하나님의 희년의 역사,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 하나님의 화해와 해방,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나라이다.

이와는 달리 세상은 힘과 돈에 의해 지배되는 세계이고, 그래서 온갖 거짓과 불의가 난무하는 세계이다. 특히 자본주의 세계인 오늘의 세상은 돈의 법칙, 매매의 법칙이 지배하는 세계이다. 이렇게 우리 앞에는 두 개의 세계가 있는데 하나는 세상 나라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나라이다. 세상 나라가 매매의 세계라면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세계이고, 세상 나라가 계산의 논리가 지배하는 나라라면 하나님 나라는 거저춤의 원리, 즉 은혜의 원리가 지배하는 나라이고⁸⁾, 세상 나라가 경쟁하고 빼앗고 지배하고 군림하는 나라라면, 하나님 나라는 상생하고 나누고 섬기는 나라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은혜의 세계로 부름 받은 사람들이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이라면,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세상 나라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치)를 따라 살아야 한다.⁹⁾

6) 예장총회사회봉사부 편저, 『디아코니아-사회선교 정책문서 자료집』 (서울: 동연, 2016), 34-39.

7) Glen H. Stassen and David P. Gushee, Kingdom Ethics, 신광은, 박종금 역, 『하나님의 통치와 예수 따름의 윤리』 (대전: 대장간, 2011), 41-42.

8) Jacques Ellul, 양명수 역, 『하나님이나 돈이나』 (서울: 대장간, 1991), 124-129.

3. 시대의 징조

오늘날의 경제는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승자독식의 경제, 곧 탐욕의 경제이다. 최근의 자료들은 이를 입증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프랑스에서는 가장 부유한 10%가 전체 부의 62%를 장악한 반면 가장 가난한 50%는 고작 4%를 소유한다. 미국에서는 상위 10%가 국부의 72%를, 하위 50%는 고작 2%를 소유한다.”¹⁰⁾ 또한 2016년 옥스팜의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1% 부자는 나머지 인구 99%보다 더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고, 최상위의 부자 62명의 부가 하위 50%(36억명)이 가진 부와 같다고 하니 오늘날의 경제는 실로 승자독식의 경제요, 탐욕의 경제가 아닐 수 없다.¹¹⁾

4. 승자독식의 경제에서 상생의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방안: 하나님나라의 경제

1) 토마 피케티의 방안

- ① 오늘날의 세계화된 세습자본주의¹²⁾와 세계화된 금융자본주의에 대한 통제(거부)
- ② 민주주의의 투명성과 매우 높은 수준의 국제적 금융 투명성과 결부된 누진적인 글로벌 자본세(누진적 자본세¹³⁾, 누진적 소득세)

2) 아가페(Alternative Globalization Addressing Peoples and Earth)운동의 방안

- ① 불의하고 파괴적인 권세에 대해 저항하기
- ② 신자유주의의 경제에 대한 거부: 신자유주의는 모든 사물, 모든 인간을 가격을 매겨 판매하는 상품으로 만들어 버리며, 인간의 존엄성보다 물질적 풍요를 우선시하므로 인간을 비인간화하고 탐욕을 위하여 생명을 희생시킨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경제는 죽음의 경제이다.
- ② 하나님의 경제 추구하기: a. 하나님의 경제는 만민에게 풍요함을 선사하고 그것을 보존하는 은혜(베풀함)의 경제이다. b. 은혜의 경제는 그 풍요한 생명을 정의롭고 참여적이며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할 것을 요구한다. c. 하나님의 경제는 상호의존, 협동, 나눔, 지구적 연대, 인간의 존엄, 창조세계의 보존을 중시하는 생명의 경제이다. d. 하나님의 경제는 온 지구공동체를 위한 경제이다. e. 하나님의 정의와 가난한 자에 대한 우선적 선택은 하나님의 경제의 증표이다.
- ④ 대안경제 만들기: a. 자유무역에서 정의로운 무역으로, b. 고리대금융에서 정의로운 금융으로, c. 세계금융체제의 변혁, d. 지역 차원에서의 대안적 금융을 위한 지원, e. 부채탕감

3) 율리히 두크로의 방안

9) 김난예·정원범, 『공동체 영성의 향기』 (논산: 대장간, 2019).

10) 토마 피케티, 장격덕 외 역, 『21세기 자본』 (파주: 글항아리, 2014), 309.

11) <https://www.segye.com/newsView/20160118003469>

12) 극심한 불평등 사회(초불평등 사회)가 되는 요인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초세습사회(자본 소득자의 사회: 상위 10%가 전체 부의 90%를, 상위 1%가 전체 부의 50%를 소유하는 사회)이고, 다른 하나는 초능력주의사회(수퍼스타의 사회, 수퍼경영자의 사회)이다.

13) 자본세의 주된 목적은 자본주의를 규제하는 것이며, 누진세는 사회적 국가의 핵심요소이다.

- ① 돈벌이만을 지향하여 다수의 인간, 자연, 미래세대에 해를 끼치는 메커니즘과 구조는 원칙적으로 거부되어야 한다.
- ② 삶을 위한 대안적 미시경제를 추구하기: a. 대안적 기업 b. 대안적 기술 c. 토지의 대안적 사용 d. 대안적 미시 금융체제 e. 대안적 무역 f. 대안적 소비 g. 정의로운 소득분배 h. 작은 대안들의 연계

4) 조지 헨리(대천덕)의 방안¹⁴⁾

- ① 토지사유제에 대한 거부: 빈곤과 극단적인 빈부격차의 근본적인 원인은 토지사유제에 있기 때문에 빈곤과 극단적인 양극화를 막으려면 토지사유제를 없애야 한다.
- ② 지대조세제(토지무르기 규정, 희년규정-토지의 평등한 사용권을 보장하려는 하나님의 배려-, 성경적인 토지법¹⁵⁾ 정신을 구현하는 탁월한 대안, 토지가치세) 만들기: 토지사유제를 없애야 한다고 해서 토지를 공유화할 필요는 없다. 대신 해마다 연간 임대가치인지대를 환수하고 다른 조세는 면제하거나 최소화하는 지대조세제를 실시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토지가격을 떨어뜨려 보다 많은 사람들이 토지를 가질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기아는 사라지고 수백만이나 되는 빈민가 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정원범 교수: 한국기독교윤리학회 회장 역임, 기독교통합신학회 역임, 교회와사회연구소 소장, 오이코스학교 교장, 대전신학대학교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기독교윤리와 현실>, <자크 엘룰의 윤리사상>, <새로운 교회운동> 등이 있다. 목회자들이 세계 영성 공동체 탐방을 통해서 하나님나라를 교회와 사회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14) 헨리 조지, 김윤상 역, 『진보와 빈곤』 서울: 비봉출판사, 2016); 대천덕, 전강수·홍종락 역, 『토지와 경제정의』 (서울: 흥성사, 2011).

15) 레 25:23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호저교회와 원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경호 / 목사, 한국기독교생명농업포럼 대표

1. 들어가면서

1990년대 이후 한국사회는 생명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그 맹아(萌芽)는 이미 오래 전에 싹이 텄다. 1976년 일단의 기독교인 농민들이 정농회를 결성하면서 생산자 중심의 생명운동이 조직적인 출발을 하였고, 1985년에는 강원도 원주에서 한살림운동이 시작되면서 소비자 중심의 생명운동이 깃발을 올린 것이다.

1970-80년대 군사독재정권시절, 한국 사회운동의 주요 의제는 반독재 민주화였고, 이념적 기초는 사회주의였다. 그러나 1987년 이후 소비에트연방체제의 붕괴와 동구권의 몰락은 한국 사회운동에 충격을 주었고,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희망을 더 이상 갖지 못하게 만들었다. 또한, 한국사회는 이미 경제성장을 위한 산업화 정책이 군사정권에 의해 30년간 지속되어 오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심각한 사회적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었다.

1960-70년대 산업화 초 중기에는 노동 및 농민문제가 중심의제로 작용하였다.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을 볼모로 진행되는 산업화 정책의 불의에 맞서서, 인권과 정의의 관점에서 사회운동이 전개되었다. 1980년 광주민중항쟁을 겪으면서 문제는 더욱 심화되었다. 동시에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행이 오래 지나면서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였다. 생명과 생태파괴의 문제였다. 이러한 모순에 대응하여 환경오염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운동조직인 공해문제추방운동연합이 결성되었고, 농업을 토대로 하는 생명운동조직인 한살림운동이 시작되었다. 1980년대는 민중운동의 강화와 함께 생명운동이 시작된 시기였다.

이렇게 시작된 생명운동이 1990년대에 들어와 전국적인 대중운동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김영삼 정권의 문민정부가 출범하여 시민사회운동이 커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1992년, 환경문제를 논의한 리우 세계정상회담 이후 한국사회에는 1993년도부터 시민운동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이 전국적으로 결성되기 시작했고, 동시에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도 조직되기 시작하였다.

원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전신인 호저생협은 이런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탄생하였다. 1987년 12월 초, 나는 장로회신학대학원 졸업과 동시에 강원도 원주 호저면의 미자립 농촌교회인 호저교회에 부임하였다. 나는 농과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다가 신학대학에 진학하였기에 농업과 사회문제에 대한 약간의 경험을 갖고 있었다. 특히 협동조합운동에 대한 경험이 있었다. 수원에 거주하면서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창립에 참여했었고, 유신 말기에는 의식화 활동을 위해 양서협동조합을 만들어 조합장으로 활동하기도 했었다. 신학대학 재학 중에는 농촌선교에 대해서도 전통적인 농촌선교와는 다른 신학적인 입장과 방법을 생각하였다. 새로운 비전을 필요로 하였다. .

2. 창립 당시 상황

부임 당시 호저교회가 위치한 마을은 전형적인 농촌마을이었다. 새벽이면 집집마다 군불을 때느라고 굴뚝마다 연기가 피어올랐고, 영농은 경운기 정도 있는 상태였으며, 손모내기 등 주로 사람의 노동으로 하였다. 농법은 다 농약과 화학비료 중심의 관행농법이었다. 주택은 전통적인 농가주택이었으며, 경제적으로는 빈곤한 상태였다. 정치적으로는 전두환 정권에서 노태우 정권으로 옮겨가는 시기였다. 농촌사회를 지탱해 온 역사적인 힘이 쇠잔하여 30년 가까운 산업화의 바람 앞에서 꺼져가는 등불처럼 보이고 있었다.

땅심과 민심 모두 척박하였다. 농사가 이미 희망이 안 되는 현실이기에 마음들이 땅과 농촌을 떠나고 있었다. 그러나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무언가 대책을 세워야 했다. 1년간 마을과 교회 상황을 살펴보았다. 모든 조건이 열악하였다. 현실적인 대안도 선택의 폭이 넓지 않았다. 교회는 미자립 상태였고, 교인은 20-30명에 불과하였다. 더구나 남자 교인은 몇 명 안 되었고, 농사로 생계를 삼는 교인 가정도 많지 않았다. 인적, 재정적인 형편이 어려웠다. 그러나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었다. 마을에도 지도자가 안 보였다. 어른이 없었다. 교회밖에는 지도력이 나올 곳이 없었다. 자! 어떻게 하면 농촌사회 문제 해결의 활로를 열어갈 것인가? 나는 희망을 갖고 현실에 접근하였다.

마을 조사를 해보니 호저면 광격리와 매호리 두 곳에 신용협동조합이 있었다. 그러나 매우 영세하여 전자의 활동은 미미한 상태였고, 후자는 활동이 정지된 상태였다. 그러나 새로 신협을 조직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했다. 시대 상황이 바뀌었다. 농협이 곳곳에 세워져서 높은 고리채에 시달리던 고통의 시대가 가고 있었다. 위의 두 신협은 후에 통합하여 면소재지로 끌어내 오리라 생각했다.¹⁶⁾ 다른 형태의 협동조합이 필요하였다. 마침 원주에 소비자협동조합(이하 소협)강원도지부가 있었다. 당시 강원도에는 소협이 많이 조직되어 있었다. 1972년의 대홍수 사태 이후 천주교 원주교구에서 사회구호 및 선교활동을 통하여 만들어 놓은 것이었다. 소협은 아직 교통이 불편하여 공산품을 비싼 값에 구입하며 살던 강원도 농민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었다. 공동구매하여 공급하기 때문에 보다 싼 값에 살 수 있었다. 그러나 세상은 빠르게 변하여 도로 사정이 좋아지고 있었다. 공산품 가격에 별 차이가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었다. 공산품 유통에 의지하는 소협은 위기에 봉착하였다.

3. 호저소비자협동조합의 창립

그러나 일단 소협을 만들기로 하였다. 천주교 원주교구에서 강사를 초빙하여 교인들에게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을 하였다. 소협을 왜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설명을 하였다. 마침내 제직회의 의결을 거쳐 교회가 소협을 만들기로 결정하였다. 나는 참여할 사람을 모았다. 당시로서는 교인들이 중심일 수밖에 없었다. 아직 마을 사람들을 잘 모르기 때문이기도 했고, 교회가 하는 일에 마을 분들이 선뜻 참여하기를 꺼렸기 때문이다. 발기인 모임을 계속 가졌다. 이 과정에서 계속 교육을 하였다. 협동조합이라고는 농협밖에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농협은 협동조합의 본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협동조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다. 발기인들을 중심으로 준비하

16) 실제로 통합 작업의 일환으로 호저소협을 만든 후 나는 소협의 조합원들을 설득하여 매호신협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 자산 3,000만원에 활동 정지 상태였던 매호신협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실무자를 채용하고 오토바이를 구해주었다. 불과 1-2년 사이에 자산이 3억 원을 넘어섰다. 나는 이사로 참여하여 면소재지로 옮겨서 소협과 함께 협동조합운동을 육성하자고 하였다. 마침내 이사회에서 이전하기로 결정하였고 총회도 이전 안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를 반대하는 일부 사람들이 성격이 유약한 이사장의 발목을 잡는 바람에 결국 이전을 못하고 말았다. 나중에 이 매호신협은 영세신협으로 시내의 신협에 통합되고 말았다. 참으로 아쉬운 일이었다.

면서 발기인총회를 통해 창립준비위를 구성하고 마침내 호저교회에서 호저소비자협동조합 창립총회를 하였다. 1989년 4월 3일의 일이었다.¹⁷⁾ 1988년도 가을부터 농한기를 거쳐 준비한 결실이었다.

구판장형 소협으로 출범하였다. 교회 건너편에 있는 낡은 건물 일부를 수리하여 구판장 및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구판장에 진열할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교단 총회 농어촌부에서 300만원을 차입하였다.¹⁸⁾ 출자금이라야 창립 조합원 50여명이 만원씩 출자한 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자금이 없었다. 300만원의 물품은 얼마 안 되었다. 진열대의 절반밖에 채우지 못했다. 그러나 마음만은 뿌듯하였다. 우리 힘으로 무언가 일구고 있다는 성취감이었다. 실무자가 필요했다. 마침 교회 여자 청년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시집가기 전 교회를 위해 봉사를 하겠다고 나섰다. 고마운 일이었다. 이사장은 교회의 남자 집사가 맡았고 나는 이사를 맡았다. 농민이 대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결국 농민의 조합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호저소협¹⁹⁾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4. 이사회와 조합원 교육

창립과 함께 이사회를 구성하였다. 이사들은 교인과 농민들로 구성되었다. 이사회는 평소 한 달에 한 번 모이면서 현안 문제들을 의논하여 처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나는 이사회를 튼튼하게 키우기로 작정했다. 모든 문제를 이사회에서 민주적으로 토론하여 결정하였다. 지금까지 농민들은 안건을 놓고 민주적으로 토론하여 결정해 본 경험이 별로 없었다. 농촌사회에 있는 조직들은 거의 관변단체요, 기껏해야 친목계 정도였기 때문이다. 또한 농촌사회의 특징이 혈연과 지연 중심의 미조직사회이기 때문에 공사(公私)를 분명히 구별하고 조직적으로 추진하는 훈련이 안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사회 운영을 민주적이고 협동적으로 하여 그것을 몸에 익히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논의 과정은 지리할 때가 많았다. 농사일을 다 끝내고 오면 저녁 8시 9시가 되었다. 게다가 하루 종일 노동하여 힘드니까 막걸리도 한잔 걸치고 회의에 임하였다. 피곤하여 회의 도중 조는 사람도 많았고, 안건은 주제를 잃고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였다. 회의가 길어져 밤 12시를 넘긴 적도 종종 있었다.²⁰⁾ 그래도 꾸준히 했다. 정해진 날짜에 이사회는 거르지 않고 했다. 자기의 발언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했다. 점차 익숙해지면서 공적인 의논과 처리에 신뢰를 갖게 되었다. 주체적인 역량이 조금씩 배양되었다. 자신이 생협의 주인이 되어야 했다.

아울러 조합원 교육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협동조합은 교육이 생명이다. 교육이 따라가지 않으면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아도 시련을 당하거나 피해를 볼 것 같으면 다 떨어져 나간다.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라 끊임없이 공적인 가치관에 대한 교육을 안 하면 금방 이기적으로 돌아서는 것이다. 공적인 유익을 통해 내가 유익해진다는 것을 교육을 통하여 그리고 체험을 통하여 익히도록 하는 것이 협동조합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다. 행사 때마다 교육을 했고, 마을마다 모임을 가지면서 교육도 하였다.

나의 협동조합 육성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체적인 역량을 기르는 것이었다. 목사가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 목사가 떠나도 변함없이 활동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려면

17) 창립총회 때 사회를 본 여성조합원은 이런 일에 전혀 경험이 없어서 내가 회의 진행의 내용을 글로 써서 준 것을 그대로 읽으면서 진행하였다. 그만큼 농민들의 상황이 어려웠다. 4월 3일은 제주 4.3 사건을 의식한 날짜였다.

18) 이 빛은 3년 거치 3년 상환의 조건이었는데 후에 다 상환하였다.

19) 1993년 4월에 소비자협동조합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약칭 생협)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민주적이고 주체적인 협동역량을 길러야 했다. 나는 이 점을 늘 신경쓰면서 키워나갔다. 결과적으로 보면 내가 10년간 관여하다가 떠난 후에도 지금까지 24살이 되도록 더욱 발전해가는 것을 보면 그 방향이 맞았음을 확인하게 된다.

5. 수원고등교회와의 직거래

창립한 지 얼마 안 되어 수원 고등교회에 시무하는 선배 박희영 목사한테서 전화가 왔다. 오랜 기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내가 농촌목회 한다는 소식을 듣고 연락을 해온 것이었다. 그리고 얼마 후 현장을 찾아왔다.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소협에 대한 얘기를 하던 중 당시 현안이었던 구관장 건물 수리 문제를 알게 되었고, 수리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하였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에 의해 풀린 것이다.

고등교회와는 이후 지속적인 관계를 맺었다. 박 목사는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 나도 생명농업을 통한 농산물 직거래가 현실적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 첫 해 6월 마늘부터 시작하였다. 당시에는 아직 수송차량이 없어서 고등교회의 박태식 집사가 자기 트럭을 가지고 와서 실어갔다. 아직 생명농산물은 아니었다. 1989년, 첫 해 농한기부터 생명농업교육에 조합원들을 참가시키기 시작했다. 다녀온 후에는 전달교육도 하고 이듬해부터 논농사를 생명농업으로 지었다. 발농사는 준비가 더 필요했다. 농사는 일 년에 한 번밖에 짓지 못하니 속도가 더디었다. 몇 해를 지나면서 점차 생명농법이 자리를 잡아갔다. 고등교회는 우리가 생산한 농산물을 매우 귀하게 여기고 성실한 자세로 구매해 주었다.

이후 고등교회는 평신도 조직을 개편하여 여러 선교위원회로 나누어 조직하였는데 그 중 농촌선교 위원회가 결성되어 그 위원회가 호저소협을 상대로 늘 교섭하면서 직거래 및 나눔의 활동을 지속해 나갔다. 평신도 조직의 결성은 목회자 중심의 활동을 교인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만들었다. 박 목사와 나는 뒤에서 잘 되도록 조정하고 협력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고등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일 중의 하나는 추수감사주일에 고등교회 교인들이 버스를 대절하여 호저교회로 다 와서 마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밥 먹고 공연 프로그램을 가지면서 즐거운 나눔의 시간을 가진 일이다. 고등교회는 직거래 과정을 연극으로 만들어 공연을 하였는데 너무 사실적이어서 폭소와 감동을 선사하였다. 아울러 추수감사헌금 전액을 호저교회에 주고 갔다. 이런 일은 처음이라 양 교회의 성도들이 새로운 체험에 모두 감동하고 마음에 새겼다. 이렇게 신앙 안에서 진정어린 나눔과 교제가 진행되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농산물 직거래에 이어 점차 인적 교류로 확대되어 여전도회간의 만남, 중고등부 수련회를 연합으로 하는 일, 아동부 아이들의 상호 교류 등의 활동으로 이어져 갔다. 고등교회는 1년에 한 번 호저소협과의 직거래 활동을 평가하는 모임을 갖곤 했는데 그 때는 우리가 고등교회에 가서 대화에 참여하였다. 궁금한 사항이나 의구심이 드는 일, 불만 사항, 직거래활동 속에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하여 솔직하게 제기하고 답변하면서 상호 신뢰를 쌓아갔다. 고등교회와의 이런 관계의 발전은 호저소협으로서는 커다란 힘이었고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이후 호저소협은 고등교회와 해마다 연초에 지난 1년간을 돌아보면서 앞날을 모색하는 정책협의 회를 갖기로 하고 보다 진전된 논의를 전개해 나갔다. 아쉬운 점은 소비자들의 의식 변화는 빠르게 진전되는 데 비해 생산자들의 변화와 대응 속도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다.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했지만 인내하면서 가는 수밖에 없었다. 고등교회 교인들은 잘 참고 이해하면서 협력해 주었다.

6. 기름공장과 미장원의 설립

이후 농민들의 생활에 유익할 것으로 생각되어 이사회는 기름공장과 미장원을 열기로 결정하였다. 당시 호저면에서는 참깨 생산이 어느 정도 되었다. 그런데 비싼 참깨가 등락이 심해 농민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많았다. 또한 시내 교통이 불편하여 여성들이 머리하러 다니기가 힘들었다. 편리하고 가격도 싸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공간은 별도의 부속 건물을 지으면서 해결하였고, 미용사는 여 집사가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따면서 준비를 하였다. 기름공장을 하려면 기계를 구입해야 하는데 새 것은 비싸서 힘들고 중고기계를 구입하였다. 마침 춘천에서 거의 쓰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하여 그것을 사왔다. 230만원으로 기억되는데 나는 이사들이 먼저 출선하여 돈을 내자고 제안하였다. 이사들은 어려운 형편에도 이 제안을 받아들여 10만원씩 냈다. 출자금으로 처리하였다. 그래도 좀 부족하였는데 그것은 외부 도움으로 해결하였다. 나는 돈이 들어가는 일의 경우 스스로 절반 이상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래야 주체적인 주인의식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미장원과 기름공장도 갖추는 소협이 되었다.

미장원은 처음에는 손님이 별로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찾는 분들이 많아졌다. 기름공장은 기름을 짤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직접 짰다. 기름을 부는 과정이 매우 중요했다. 목사가 직접 짠 기름이라고 소문을 내니 잘 팔려나갔다. 가장 큰 문제는 참깨 가격이 워낙 비싸서 수매를 많이 내놓지 못한다는 점이었다. 그러다 보니 부족한 분량을 도매물류를 통해 국산 참깨를 구입해서 싸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속아서 사오는 경우가 있었던 것이다.

7. 벼 수매를 조합에서 하다

조합 창립 후 몇 년이 지난 후 2대 이사장인 김인환 이사장 때에 처음으로 조합원이 생산한 벼를 조합에서 직접 수매하기로 결정하였다. 벼 수매를 하려면 수매자금이 있어야 하고, 생산 기반도 갖추어야 하며 소비자 수요량도 확보되어야 한다. 몇 해가 지나면서 그것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아직 수매 자금은 제대로 준비를 할 수가 없어서 걱정이 되었다.

수매당일에 나가보았다. 장관이었다. 경운기에 자기가 생산한 벼 가마들을 싣고 공터로 들어와 쪽 서 있는데 그 광경이 감동적이었다. 농민이 생산한 벼를 농민이 만든 조합에서 주인 대접하면서 수매해본 적이 있었던가? 기쁘고 숙연한 마음이었다. 감동의 물결이 마음으로 파도치며 다가왔다.

그러나 첫 번 수매는 부족한 점이 여러 가지 있었다. 수분 측정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검수위원을 정해서 측정을 해도 승복하지 않는 일들도 있었다. 어떤 조합원은 높게 나온 수분측정 때문에 더 말려 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크게 말썽을 피운 적도 있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벼수매는 점차 체계를 잡아갔다.

수매자금도 부족하였다. 고등교회에 부탁하여 자신이 먹을 쌀 값 1년 치를 미리 좀 주면 수매자금으로 쓸 수 있겠다는 부탁을 하였다. 소비자들에게도 부담되는 일이었다. 그러나 농민들의 사정을 듣고는 흔쾌히 응해주었다. 농민들은 벼 수매대금을 일시에 목돈으로 받아야 그것으로 연말에 빚 갚고 가정 경제에 도움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보내준 수매 자금은 절반 액수밖에 되지 않았다. 고민이 되었다. 자 어떡할 것인가? 수매에 응한 농민들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었다. 그러나 나는 정면 돌파하기로 마음 먹었다. 수매에 응한 생산자들과 함께 회의를 했다.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잔뜩 기대하고 온 분들의 얼굴이 수심으로 가득하였다. 긴장된 시간

이 흐르고 있는데 수매량이 제일 많은 조합원이 침묵을 깬다. “제가 늦게 받겠습니다. 이것을 다른 분들에게 나누어 주시지요” 이 한마디로 모든 문제가 일거에 해결되었다. 한 사람이 희생적인 양보를 함으로써 모두에게 기쁨을 선사한 것이다. 이 일은 이후의 조합 활동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 생협 일처리의 기본적인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함을 몸소 보여주었기 때문에 산교육이 되었다. 양보한 사람은 추후에 이사장을 지냈다.

8. 실무자의 변동과 매출의 증가

창립 후 초기에는 생협 실무를 교회 남 집사(이사장 겸 실무자)가 맡았다. 아직 물량이 얼마 안 되고 일거리가 많지 않은 상황이었어서 그럭저럭 해 나갔다. 그러나 6개월, 1년이 지나면서 그의 능력으로는 증가하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었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일처리를 필요로 하였다. 연세대학을 갓 졸업한 청년이 새로운 실무자로 왔다. 컴퓨터가 나온 초기였는데 그는 열심히 소명감을 갖고 일했다. 사무 처리를 컴퓨터로 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만드느라 밤을 새는 일도 종종 있었다. 도농 간의 직거래운동이 아직 초기 단계였고, 생협 운동도 초기였기 때문에 어디 도움 받을 데가 마땅치 않았다. 모든 일이 개척적인 단계였다. 그러나 새로운 세계를 열어간다는 설레임과 희망이 있었다.

2대 실무자가 떠나고 3대 실무자가 들어왔다. 그 역시 열심히 했다. 그가 일할 때에는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소비자 조직이 결성되어 활동이 점차 확대되고 있을 때였다. 고등교회를 주요 소비자로 삼고 원주시내의 아파트 단지, 서울의 교회 등을 소비처로 삼던 시대에서 점차 생협 간의 거래로 이동해 오게 되었다. 매출량도 증가하였다. 이전의 3억 내외의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여 5억, 7억, 10억 원을 향해 나아갔다. 매출량이 증가하니 생산자들의 움직임이 활성화되었다.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처리해주는 양이 늘어나니 농민들은 좋아하였다. 이 때 사업이 잘 되어야 운동도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운동적인 사고에 너무 경도되면 사업이 잘 안 풀리고 그러면 조합이 침체된다. 운동과 사업은 같이 가면서 조화를 이루어야 하지만 사업이 먼저 잘 되어야 운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운동이 잘 되고 사업이 안 되면 결국 운동도 죽고, 사업이 잘 되고 운동이 죽으면 그것은 수익사업으로 전락하게 된다. 양자 간의 조화와 균형은 늘 긴장관계 속에서 제 위치를 찾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한 해 한해를 넘기는 것이 힘들었다. 유통사업이 중심이어서 게다가 생명체인 농산물이어서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지 않으면 적자를 볼 수밖에 없었다. 해를 넘길 때마다 숨이차고 짐이 무겁게 느껴졌다. 그러나 아직 임원진과 실무진의 역량은 증가하는 사업 규모를 감당할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 이 간격은 쉽게 좁혀지지 않았다. 사람의 일은 시간이 필요하며 생각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9. 호저생협의 도약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호저생협은 새로운 실무자를 맞이하게 되었다. 3대 실무자가 복숭아 농사를 짓겠다고 사직하고 나간 후였다. 당시 실무자를 구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월급도 적고, 교통도 불편한 시골 생협이 누가 와서 그 많은 일을 감당할 것인가? 소명이 없으면 못할 일이었다. 지금은 고인이 된 농민운동가 임광호 씨에게 부탁하여 좋은 일꾼을 소개받았다. 그는 능력이 뛰어났다. 오랫동안 사회운동을 해온 경험이 있으며, 그것도 비합법적인 공간에서 활동해온 처지인데도

현실의 전선인 협동조합의 일을 잘 처리하였다. 그동안 내가 구축한 인맥과 활동의 내용을 모두 인계해주었다. 그리고 몇 달을 뒷받침하다가 아예 모든 것을 위임해버렸다.

그는 기대한바 대로 일을 잘 풀어나갔고 마침내 2000년 3월에 이르러 호저생협의 업무구역을 호저면 일대에서 원주 및 강원도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확대하면서 그리고 조합원도 원주시내의 소비자들 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면서 이름도 원주생협으로 바꾸며 새로운 전환을 하였다. 호저생협으로서는 도약의 시기였다. 여건도 조성되었다. 그러나 아무리 여건이 되어도 내부에서 그 여건을 활용할 능력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일이다. 호저생협은 당시의 실무역량을 토대로 그동안 쌓인 역량을 갖고 주어진 여건을 잘 활용하여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었다. 이것은 호저생협 발전의 결정적인 계기였다. 1-2대 실무자가 기초를 놓고 3대 실무자가 담보상태에 있던 매출액을 신장시키며 활성화시켰다면 4대 실무자는 그 모든 것을 질적으로 한 단계 높여서 변화를 이룬 것이다. 옷을 갈아입은 원주생협의 초대 이사장으로는 박영학 씨가 선출되었다. 그는 이미 호저생협 당시 이사장을 지낸 경험있는 농민이었다.

이제 호저생협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원주생협으로 비뀌었고,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생협으로 자리잡아갔다. 생산자 중심의 생협이 몇 안 되는 상황이어서 원주생협의 변화는 새로운 실험의 길이었다.

정치적 환경도 바뀌어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이 집권하면서 생협운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생협 창립 당시 노태우 정권에 의해 늘 감시받고 시찰 대상이었던 생협이 이제는 정부 지원을 받는 상황이 되었으니 상전이 벽해가 된 것이다. 원주생협에게도 기회가 왔다. 이때까지 10여년 간 정부 지원 한 푼 없이 자력으로 키워왔기에 주체적인 역량은 많이 배양된 상태였다. 이제는 정부 지원 받아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되었다. 먼저 물류센터 건축 지원을 받았다.

2004년 3월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 ‘호저생명농업유한회사’를 창립하였다(후에 원주생명농업회사로 전환). 생협의 이름으로는 지원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2004년 12월 마침내 물류센터 건물을 완공하였다.²¹⁾ 사실 이전에는 호저교회가 지은 건물을 사무실 및 사업 장소로 사용했었다. 나는 1994년에 사택을 신축하면서 1층에 호저생협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구판장, 미장원, 기름공장, 생협 사무실과 작업장이 모두 들어가도록 40평 규모를 건축했었다. 그동안 미장원과 구판장 그리고 기름공장은 정리된 상태에서 물류센터로 이전하였다. 15년간 호저교회의 건물에서 활동하다가 이제 완전히 교회 그늘을 벗어나 마을로 들어가는 상황으로 바뀐 것이다.

10. 시 련

이렇게 잘 나가는 듯하던 원주생협은 뜻하지 않은 시련에 봉착하게 되었다. 두 가지였다. 2003년도에 발생한 생협연대(현 icoop생협)와의 갈등으로 인한 타격과 2006년도에 발생한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발생한 갈등이었다.

먼저 생협연대와의 갈등이다. 생협연대는 호저생협 초기 시절부터 직거래를 하면서 같이 성장해온 단체이다. 당시에는 농촌에 조직적인 생명농산물 생산지가 별로 없던 때였다. 호저생협은 수도권에서 가까운 생산지여서 그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입지에 있었다. 오랜 기간 동지적 관계로 발전해왔는데 생협연대는 일취월장 큰 도매물류연합체가 되었고, 호저생협은 여전이 작은 농촌생협에 머물러 있었다. 규모가 작았던 초기에는 대등한 관계가 오래 지속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조직 규모의 차이가 대등한 관계를 무너뜨렸다.

21) 이 건물의 상량(上樑) 글씨를 내게 부탁해 와서 잘 못쓰지만 써주었다.

물류센터 건립의 문제가 걸림돌이었다. 생협연대가 지역에 물류센터를 건립하려는 정책을 세우고 원주에도 세우려고 하였다. 원주생협이 있는 곳에 토지를 함께 매입하여 부지를 공동으로 마련하였다. 그러나 운영방식에 문제가 있었다. 생협연대는 산지의 농산물을 물류센터로 집합하여 그것을 생협연대로 가져 갈 때 원주생협에게는 수수료만을 지급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들의 명분은 중간 마진을 줄여서 소비자에게 좀 더 싼 가격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원주생협은 단순히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을 수집하여 센터로 모았다가 수수료만 받고 생협연대로 보내는 중간 기지의 역할로 국한된다. 원주생협의 입장에서 이것은 원주생협의 운동적 기능을 완전히 박탈당하고 단순한 상거래상의 농산물 집하장으로 전락하는 것이었다. 지역생명운동단체로서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다. 지역의 생명운동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공적인 의미의 비용을 없애고 그 대신 소비자에게 싼 값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은 지역운동을 죽이고 자기만 살겠다는 경영논리 이상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협동조합정신과는 배치된다고 생각했다. 원주생협이 이런 입장을 갖자 물류센터 건설은 취소되었다. 양자 간의 관계가 불편해졌다.

이러한 때에 사건이 터졌다. 생협연대에 공급하는 잡곡에 수입농산물이 있다고 생협연대가 자기 홈페이지에 대서특필한 것이었다. 사전에 아무런 확인과 의논과정도 없이 일방적인 것이었다. 잡곡류는 애초부터 원주생협 조합원들의 생산량만으로는 부족하였다. 그래서 실무자간에 이미 양해가 된 상태에서 부족한 물량을 국산 잡곡을 도매물류에서 구입하여 공급해왔던 것이다. 이미 오래된 관행이었다. 그것을 이때 터뜨린 것이다. 이제는 생협연대가 워낙 덩치가 커져서 원주생협이 그들의 눈치를 보고 하자는 대로 따라야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되었다. 원주생협 매출량의 70-80%를 생협연대에 공급하고 있으니 의존도가 너무 컸다. 원주생협으로서는 큰 타격이었다. 하루 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위기에 봉착하였다. 나는 이때 호저교회를 사임하고 원주의 남쪽인 귀래로 이거하여 농사를 짓고 있었다. 나에게 도와달라는 요청이 왔다. 생산자들과 함께 생협연대 사무실을 찾아가기도 했고, 생협연대 실무자들과 계속 협의도 했다. 생협연대의 이사장과의 만나서 대화로 풀려고 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그해 생산될 쌀은 전량 구매하기로 하고 다른 농산물은 우리가 알아서 유통하기로 하였다.²²⁾ 이후 두레생협연합과 물류 관계를 맺고 점차 확대 발전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두 번째 시련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갈등이다. 원주생협이 출범하면서 소비자들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였는데 이들은 가입 후 활발한 활동을 벌여나갔다. 동아리도 만들고 활동가로도 나서고 하면서 활발하게 움직였다. 이사회에도 소비자들을 대표하는 분들이 들어와 의사결정에 참여하였다. 바람직한 일이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반영하여 원주생협 2대 이사장을 소비자에게 맡겼다. 여성 소비자 이사장이 탄생하였다. 처음에는 매우 활발하게 움직였다. 문제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고 사고방식의 차이가 점차 드러났다. 생산자들이 보기에 소비자 활동가들이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성과는 별로 눈에 안 뜨이고 활동비는 계속 들어갔다. 열심히 농사지어 유통하여 이익을 내면 그것이 생산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들어가기만 하였다. 게다가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면 출자금이 많은 생산자들이 거의 다 감당하게 되어 있었다. 생산자들의 불만이 점차 높아졌다. 소비자들은 좀더 지속적으로 그렇게 가야한다고 주장하였다. 금방 성과가 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사회 내에서도 생산자 이사와 소비자 이사 간에 점차 의견 차가 심해지고 나중에는 감정적으로 치달았다. 여성소비자 이사장이 사임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사태를 수습해야 했다. 나에게 도움 요청이 왔다. 원주생협의 현실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세워달라는 것이었다.

22) 이 때 채소농사를 지으며 생협연대에 공급했던 농가들이 갑자기 공급처를 잃어버리는 바람에 큰 피해를 입었다. 연말 결산에서 이 해에 약 3,000만원의 손실을 보았는데 총회에서 박영학 이사의 제안으로 출자금을 감자(減資)처리하였다.

나는 요청을 받고 움직였다. 먼저 다방면의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현황을 파악하였다. 소비자, 생산자, 이사, 활동가, 실무자 등 다양하게 파악하려고 했다. 그리고 원주생협의 사업 현황을 살펴보았다. 조직 활동도 점검하였다. 모든 현황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였다. 최종적인 결론의 핵심은 원주생협의 주요활동은 앞으로 소비자가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결과는 생협 관련 내부의 주요 인사들이 다 참여한 가운데 발표되었다. 그리고 이사회에 보고하여 정식으로 접수되었다. 이 결과를 금방 다 수용하여 추진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둘째문제이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결론을 냈다는 점에서 이는 높이 평가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갈등은 언제나 발생할 수 있다. 상호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한 그런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생명운동을 함께 전개해나가는 것이 협동조합운동의 넓은 뜻이라고 생각하면 상호이해와 협력으로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다.

11. 이후의 발전과 현황

갈등의 와중에도 발전은 거듭되었다. 생협연대와의 갈등을 극복하고 두레생협연합과 물류를 함께 하던 2005년 6월에 원주시의 보조를 받아 원주시내 단관택지에 첫 번째 매장을 개장하였으며, 2009년 6월에는 무실동에 두 번째 매장을 열었다. 두 매장 다 현재는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운영하고 있으나 문제는 원주생협 생산자가 생산한 농산물의 매출액과 두레생협연합으로부터 공급받는 공산품의 판매액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점이다.

획기적인 것은 2006년 7월에 두레생협연합과 함께 '두레축산'을 설립하고 한우 사육의 협력체제를 갖춘 것이다. 소비자와 생산자가 힘을 모아 유기축산의 길을 모색하고 발전을 도모한 일은 매우 뜻 깊은 일이다. 이후 소비자들은 자금을 모아 송아지 입식을 지속적으로 도왔다. 이미 우리는 구제역 사태를 겪었지만 원주생협과 두레생협연합은 이미 구제역 발생 수년 전에 대비해온 셈이다.

2008년 4월에는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원주시내의 각급 학교에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하게 되었고, 2009년 4월에는 원주지역순환농업 선포식을 가졌다. 원주생협은 2007년 마을단위의 유축복합영농구조를 통한 지역순환농업체계 실현을 사업목표로 설정하였고, 유기축산을 위해 한우 작목반을 구성하였으며, 2008년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친환경농업지구로 지정받아 3동의 우사와 지렁이 양식장, 분변토장, 집하장을 건립 하였다. 2007-2008년 2년에 걸쳐 두레생협연합회 소비자 조합원들이 송아지 입식기금 4억 330만원을 모금하여 50여 마리의 송아지를 입식하였으며, 후에 친환경 벼 전문도정공장을 설립하였다. 이런 여러 조건들을 갖추어가면서 선포식을 한 것이다. 지역순환농업체계를 갖추는 것이 아마도 농업생산에 있어서 최종의 목표가 될 것이다. 생산과, 유통, 소비의 관계를 유기적이고 순환적으로 망을 형성하여 지역공동체의 삶이 자립적인 토대위에 서도록 하는 이른 앞으로의 중요 과제이다.

2009년 11월에는 친환경 벼 전문도정공장을 설립하여 생산자들의 벼를 남에게 맡기지 않고 독자적으로 도정할 수 있게 되었다. 2011년 4월에는 여성생산자회 '흙사랑'이 출범하였으며, 2011년 6월에는 농업회사법인 '원주생명농업'을 주식회사로 전환하였다. 2011년 11월에는 친환경벼 저온창고(100평)를 준공하여 수매한 벼와 도정한 쌀을 보관할 수 있게 되었다. 2012년 5월부터는 유기농 클린벨트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2017년 1월에 호저면 무장리에 반찬가공공장을 설립하여 생산, 공급하고 있으며, 2018년 11월에는 원주시내에 친환경로컬푸드직매장을 개점하여 지역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고 있다..

생산자 중심의 (주)원주생명농업은 2018년도 말 현재 원주생협, 한 살림, 두레생산자회, 농민조합

원을 합쳐서 171명이 참여하고 있다. 출자금은 4억 4천만 원이며 친환경농업 면적은 30만평(논 20만평, 밭 10만평)이다. 추진 사업은 원주권농산물을 두레생협연합회로 계통공급하고, 학교급식용 쌀을 도정하여 공급하며, 도정공정을 통한 도정 사업을 하고 있다. 사업 규모를 보면 연간 매출액이 33억 원 정도이다.

19개의 작목반(벼, 채소, 과일, 메주 등 품목 수 50여 가지)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작목반이 13개 마을에 조직되어 있다. 또한 채소, 복숭아, 한우, 유정란, 메주 등 5개의 품목작목반이 활동 중이며 특화된 모임으로 유기육묘연구모임이 있다.

2018년도 말 현재 친환경농산물 주요 생산 품목 및 생산량은 다음과 같다.

- ① 총생산량 900여톤, 품목 50여 가지
- ② 주곡 350톤
- ③ 채소 500톤: 김치거리 300톤, 엽채류 100톤, 과채류 20톤, 양채류 30톤, 근채류 50톤
- ④ 과일 50톤: 복숭아 중심
- ⑤ 가공품 : 손틀메주 3톤
- ⑥ 반찬 : 김치, 절임류 등

소비자 중심의 원주생협은 2018년도말 현재 총 조합원수 3,500명(단체조합원 57곳 포함)이며 2018년도 매출액은 약 14억 원이다. 현재 원주시내 두 곳 단관지구와 무실동에 점포가 있으며 무점포 판매도 동시에 하고 있다. 단관점은 최근에 개점한 친환경로컬푸드직매장과 합쳤다. 원주생협의 기본목표는 다음의 네 가지이다. 첫째, 조합원 및 임직원의 교육을 강화시켜 나감으로서 조합원활동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사업에서의 효율성을 기해 나간다. 둘째, 조합원 활동 영역과 사업영역 간 역할의 분화와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시킨다. 셋째, '먹거리의 생활가치 실현'과 '조합원 참여 운동의 심화'를 통해 신명나고 행복한 조합원 활동으로, 조합원의 생활터전으로 나아간다. 넷째, 생산과 소비 간 협력과 연대의 관계를 강화하고, 역할의 분화와 집중을 통해 상생의 경제와 사회를 만들어 나아간다.

12. 나가는 말

원주생협이 창립된 지 지난 4월 3일로 30년이 되었다. 시작했을 때가 엇그제인데 벌써 30년의 세월이 흘렀고 많은 발전과 변화가 있었다. 농민 중심의 조합으로 출발하여 이제는 소비자와 함께하는 조합이 되었으며 보다 발전된 생산 기반과 확고한 물류체계와 활동조직을 갖게 되었다. 생명운동을 통하여 건강한 지역 및 사회건설을 해 나가는 희망의 활동이다. 점차 지역사회생명문화공동체로 자리를 잡아 나가야할 것이다. 모쪼록 협동조합의 원칙과 정신을 잃지 않으면서 상업주의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면서 더욱 전진해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한경호 목사: 1999년부터 생명농업선교를 위해서 사역을 하면서 농촌교회 목회자를 위한 전문계간지 「농촌과 목회」를 발행하고 있다. 현재는 한국기독교생명농업포럼 대표와 강원도 횡성영락교회 담임목사로 재직 중이다. 2007년 4월부터는 생명의 쌀 나눔 기독교운동본부도 운영하고 있다. 원주생협 고문, 온생명생협 전 상임이사, 한국기독교생명농업포럼 대표, 아시아기독교생명농업포럼 공동대표, 생명평화마당 공동대표 등으로 한국교회 생명운동의 최전선에서 일관된 사역을 추구해 왔다.

경제적 소외계층과 함께 지역공동체 운동을 펼쳐가는 해인교회와 내일을여는집

이준모 / 내일을여는집 이사장, 기독교사회적기업지원센터총괄본부장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해인교회 : 마을 스케치

해인교회의 주일 예배 출석 인원은 약 150여명에 불과할 정도로 작은 교회이다.

그러나 해인교회는 결코 작지 않은 교회다. 해인교회의 일상은 너무나 분주하다. 먼저 해인교회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상을 소개한다. 교회로 들어오는 입구에는 누구나 편안하게 쉬었다 갈 수 있는 파라솔과 의자가 마련되어 있다. 특별히 파라솔은 4.16 세월호 '희망공방'에서 제작한 것이다. 그곳은 늘 지역주민들이 담소를 나누는 쉼의 공간이다. 파라솔과 의자 옆의 공간은 마당과 주차장이 있다. 주차장에는 냉동탑차 세 대가 주차해 있다. 냉동탑차에는 "푸드뱅크"라는 큼지막한 문구가 적혀있다. 푸드뱅크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빈곤지역을 돌며 배식을 실시한다.



해인교회의 건물 1층은 예배당이다. 계단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가면, 좁은 사무실에 10여명의 사회복지사들이 앉아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좁은 공간이지만 이들의 품은 한껏 넓다. 다양하고 역동적인 업무를 진행한다. 사무실 옆 상담실에서 상담을 진행하는 상담사와 자신의 필요를 이야기하고 있는 노인이나 노숙인의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내담자가 한꺼번에 밀려오는

경우에는 상담실조차 모자라 옆 교육원에서조차 상담을 받는 모습도 종종 보인다.

2층 사무실과 교육관의 위층은 점심식사를 준비하는 손길로 분주하다. 많은 교회들이 주 1회 정도 점심때 무료급식을 하지만, 해인교회는 매일같이 지역주민을 위해 점심 무료급식을 제공한다. 보여주기 식이나 공급자 중심의 복지가 아니라 철저히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한다. 해인교회는 지금까지 21년째 무료급식을 하고 있다. 점심때가 되면 80여명의 지역 어르신들이 와서 식사를 한다. 어르신들의 식사가 끝나면 다시 70여명의 노숙인과 사회복지사들이 식사를 한다. 식당이 좁기 때문에 두 차례 나눠서 식사를 하는 것이다.

해인교회의 지하에는 노숙인을 위한 휴게실이 늘 열려 있다. 10평 남짓되는 휴게실이지만 노숙인들에게는 휴식과 충전의 공간으로 안성맞춤이다. 10여대의 컴퓨터가 놓여져 있다. 짧은 시간을 이용해 게임을 하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이력서를 작성하거나 취업을 위해 인터넷 서핑을 하는 노숙인들도 있다. 몇몇은 비치된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

외형적으로 비록 작은 교회일지 모른다. 그러나 해인교회의 마을운동은 결코 작지 않다. 특히, 일자리 프로그램에는 지역주민들 1,3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결코 작은 수가 아니다. 일자리 프로그램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노인 일자리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니어 클럽에서 주관하고 있다. 지역 어르신들 1,270여명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이 어르신들과 지역의 복지를 위해 사회복지사 40여명이 일한다. 그 외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다. 식당이나 미용실, 떡집 등과 같은 시장형 일자리를 제공받은 사람들이 있고, 계양산의 환경을 보전하고 지키려는 공익형 일자리를 제공받은 사람들도 있다.

해인교회는 지역사회 복지의 한 축을 감당하고 있다. 그러한 면에서 볼 때 공간이 넉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1998년 해인교회가 개척하기 전 이 건물은 일식집으로 사용되던 건물이었다. 당연히 교회의 예배당으로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했다. 약간의 증축을 더해 지금의 건물이 되었지만 역시나 볼품은 없다. 그러나 지하 1층 지상 3층의 온 건물내에 있는 사무실과 상담실, 교육실, 식당은 낮과 밤 구별없이 거의 매일 사람들이 찾고 이용한다. 공간은 좁지만 넉넉한 교회임에 틀림없다.

교회 앞에는 떡집이 하나 있다. 이 떡집은 [떡이랑 찬이랑]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다. 올해로 3년차에 들어간 식자재 유통사업이다. 떡과 식자재를 만들어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관에 납품을 한다. 그리고 마을에 있는 경로당에 떡을 만들어 납품하기도 하고,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에 떡과 간식, 김밥 등을 납품한다. 년 매출은 3억 5천만 원 내외다. 실무자 2명과 노숙인 5명, 그리고 노인 10명이 일을 하고 있다. 교회 공간의 한계로 인해 교회 앞 임대건물을 얻어 떡집을 차렸다. 모시로 잘 알려져 있는 충남 서천군과 연계해서 서천군 한산면에서 직접 제공해 오는 모시잎을 주원료로 모시떡을 전문으로 하는 떡집을 열었다. 이 사업을 통해 노숙인과 어르신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교회 앞에 있는 또 하나의 사무실은 지역에서 폐휴지를 줍는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 만든 장소이다. 전국 최초로 만든 폐휴지를 줍는 어르신들을 위한 협동조합 사무실이다. [실버자원협동조합]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폐휴지를 주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약 175만명 정도 된다. 이 분들 가운데 부양가족 시스템 때문에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혜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생계형으로 폐휴지를 줍는 어르신들이 교통사고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다. 도시계획법에 따라 고물상들이 외곽으로 밀려 나면서, 어르신들이 고물상까지 폐휴지를 옮기는 이동거리는 왕복 약 2시간 이상 걸렸고, 교통사고로 이어졌다. 또 하나는 제지회사들의 담합으로 폐휴지 값이 반값으로 떨어졌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폐휴지를 줍는

어르신을 위한 협동조합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우선 어르신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회 앞에 협동조합 사무실을 설치하고, 트럭을 한 대 구입하여 조합 사무실 앞에 두고 수시로 오시는 어르신들의 폐휴지를 트럭에 모아 바로 고물상에 내다 팔아 수익을 조합원에게 실적대로 나누어 드렸다. 어르신들은 폐휴지를 주워 조합사무실로 가지고 오면 조합원들이 무게를 달아 트럭에 싣는다. 그리고 조합원들은 사무실 곁에 있는 세면장에서 샤워도 할 수 있고, 사무실에서는 푸드뱅크에서 제공된 음료나 간식을 자유롭게 냉장고에서 꺼내 먹을 수 있다. 조합 사무실은 사랑방과 같은 역할을 한다. 매일같이 푸드뱅크에서나 후원자들에게 온 물품들을 나누기도 한다. 조합원들은 우리 마을에서 생계형으로 폐휴지를 줍는 어르신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준비팀을 꾸렸다. 준비팀은 지역에서 폐휴지를 줍는 이들 100여명을 상담하였고, 이 중 생계형 30명을 선발하여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만들었다. 사회복지사 실무자가 1명 있고, 구청에서 파견된 노인일자리로 일하시는 분이 10명 있다. 구청에서 파견된 어르신들은 청소 등을 돕는다. 사회복지사는 지역 기업과 학교, 그리고 많은 상점들에서 나오는 폐휴지와 옷가지를 관리하고 어르신들을 지원하는 한편 협동조합원의 상담, 교육, 복지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교회 주변에는 교회를 중심으로 노숙인 쉼터, 지역아동센터, 재활용센터, 가정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인 시니어클럽이 있다. 각 기관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연계되어 있고, 재정적으로나 정신적(영적)으로나 교회가 뒷받침하는 형태다.

해인교회가 IMF 이후 지난 19년째 노숙인을 위한 쉼터를 만들고, 노숙인 자립지원 생활 시설로 재활용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한 일도 19년째가 된다. 노숙인들은 제공받고 있는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낮에는 사회적 기업 계양구재활용센터와 도농살림에서 일을 하거나 알선해 주는 일터에서 일을 한다. 쉼터에서 생활하는 노숙인들의 년 평균 취업률은 무려 95%가 넘는다. 거의 대부분의 쉼터 입소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 셈이다. 쉼터 입소자들은 여름 장마철과 한겨울에는 일을 얻을 수가 없었다. 거의 일용직 현장근로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늘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는 없었다. 그래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해인교회와 계양구청에서 큰 도움을 받게 되었다.

해인교회가 트럭을 사주고, 계양구청이 외곽순환도로 밑에 800여평을 제공해 주었다. 2001년에 「계양구 재활용센터」가 만들어졌다. 지금까지 노숙인 2,000여명이 이곳을 통해 자립하여 나갔다.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만들어 진 후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밀려오는 노숙인들에게 일자리는 늘 부족했다.

이후 착안한 일자리가 [도농직거래상생사업단]이다. 농촌에서 목회하는 선후배들이 태양고추, 유기농 감자와 같은 농산물을 매년 팔아 달라고 해서 시작한 사업이다. 처음에는 여신도회를 중심으로 농산물을 팔았다. 그러나 일회적인 사업이 되기 일쑤였고, 노숙인에게 일자리를 더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 사업단을 만들어 체계적인 농산물 유통사업장을 열었다. 이 역시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제정된 후 지금은 사회적 기업 「도농살림」으로 발전되었다. 매주 금요일마다 구청에서 열리는 장터에 나가 물건을 팔기도 하고, 회원들에게 좋은 상품을 안내하여 팔기도 하고, 설과 추석에는 대기업에 대량으로 납품하기도 한다. 년 3억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다.

해인교회는 지난 19년 동안 끊임없이 경제적으로 파산하거나 일자리를 얻을 수 없는 이들을 돌보며, 그들에게 일할 권리를 일깨워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들과 더불어 대안경제공동체를 만들며 더불어 살아왔다. 해인교회 성도들이 그동안 목회자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목회자의 목회 철학에 동의하고 성실히 함께 해준 덕분이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늘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했던 삶의 모습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삶을 있는 그대로 닮고 싶어서 였다는 점이다. 해인교회의 신앙고백은 말씀 그대로 지키고 실천하자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이기 때문이다.

사회안전망을 기반한 복지마을을 꿈꾼다

해인교회에는 간판 큰 것 두 개가 걸려 있다. “해인교회”와 “내일을여는집”을 알리는 간판이다. 해인교회를 알리는 안내지에 보면, 지역주민을 돕기 위해 안내된 사회복지 사업과 프로그램이 즐비하다. 무료급식-푸드뱅크-푸드마켓-지역아동센터-가족상담소-시니어클럽-족방상담소-노숙인 남녀 쉼터-노숙인취업센터-사회적 기업 도농살림-사회적 기업 계양구재활용센터 등이다. 해인교회는 지금 12개 사회복지시설에서 40여명의 사회복지사들이 일하고 있다. 목회자들 역시 나의 아내 김영선 담임목사를 비롯해서 대부분 사회복지사들이다. 사회복지시설이 많다는 생각을 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안내지를 조금만 읽어 보면, 시설이 많다고 보다는 각 시설이 잘 연결되어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안전망과 같은 체계를 가지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사회복지 사업은 실직자와 그 가족을 위해 [긴급구조]-[상담과 사례관리]-[교육]-[재취업과 지역발전 사업]의 4단계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일반 사회복지관에 가면 취업을 알선해 주거나 잠자리를 제공해 주지 않지만 “내일을여는 집”에 가면 이 모든 것을 제공 받을 수 있다. “내일을여는집”은 개소 처음부터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이제는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잠자리가 필요한 사람에게 잠자리를 주고,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교육과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교육과 상담을 제공해 준다. 돈이 없어 병원에 갈 수 없는 사람도 병원에 갈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교육이 필요한 사람은 교육의 기회를 준다. 운전면허, 한식·양식 조리사 취득과정에도 보내 준다. 이런 기관과 프로그램을 통해 매일같이 배우고 일하는 사람이 1,000 여명이 활동한다.

사회안전망에 눈을 뜨게 된 것은 1998년 IMF 시기이다. 이 때 크리스찬 아카데미에서 열렸던 한 세미나에서, 교회가 국가의 경제적 부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해 나갈 것인지? 실업과 빈곤에 처한 지역주민을 어떻게 위로하고 보살펴 나갈 것인지? 이에 대해 집중적인 공부와 교육을 받았었다.

당시 크리스찬 아카데미 신필균 원장은 스웨덴에서 오랫동안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경험을 토대로 한국의 사회복지학과 교수들과 더불어 민관이 협력하고 대안경제공동체로 나아가 지역공동체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함께 모인 목회자들과 더불어 실업대책 지역공동체 기독교 연대를 만들어 해인교회 사업을 모델링하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우리 해인교회는 교회가 중심이 된 민간 사회안전망 시스템을 구축하기에 이르렀고, 이제는 복지마을을 꿈꾸며 지역공동체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해인교회와 내일을여는집

해인교회가 사회복지선교를 중심으로 목회를 시작하게 된 배경은 1998년에 발생한 IMF 사태와 연관이 깊다. 물론 해인교회가 1986년에 설립될 당시부터 노동자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설립된 교회였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 IMF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다. 1980년대 후반에 해인교회는 노동자를 위한 상담, 교육, 공부방 운영, 노래교실 등을 운영했다. 그러나 1987년을 지나면서 한국사회의 노동자는 사회민주화의 바람을 타고 공장이나 회사마다 민주노조가 만들어지면서, 교회는 더 이상 노동자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노동자들의 안식처가 될 수 없었다. 패러다임의 변화가 피부로 느껴졌다. 교인의 상당수가 회사와 공장으로 돌아갔다. 교회는 존립마저 위태로웠다. 그러다가 교회는 1998년에 IMF 사태를 직면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를 계기로 교회는 다시 노동자 선교의 전통에서 베어 온 민중들의 대한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본래부터 해인교회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선교적 열정이 있었기에 IMF 사태를 맞으면서도 실직자와 실직가정을 돌보는 일에 집중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교회내 실직자와 실직가정을 돌보는 일에서 출발했지만, 국가부도라는 엄청난 사건의 한 가운데서 교회는 사회적 책임과 소명의를 느끼게 되었다. 교회는 IMF 직후 실직자와 실직가정을 위해 1998년에 사단법인 『실직자쉼터 및 자활모임터 인천내일을여는집』을 설립하게 되었다. 내일을여는집은 크리스천 아카데미에서 주관한 세미나에서 제시된 통합적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와 토론을 통해 실직자와 실직가정을 위해 [긴급구조-상담과 사례관리-교육-재취업과 지역발전사업]이라는 4단계의 사회복지통합서비스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현장에서 실천적으로 적용해 나갈 수 있었다.

먹을 것, 일자리, 잠자는 곳이 기본 시스템이었다

IMF 사태이후 해인교회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무료급식소와 상담소였다. 실직자와 실직가정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영역이었다. 무료급식소는 IMF 사태 이후 많은 실직자들이 한 끼의 끼니조차 때우기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면서, 교회가 성경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당시만 해도 우리는 마스크를 통해 한 끼의 식사를 얻기 위해 줄을 길게 늘어선 모양을 쉽게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실직자의 문제와 굶는 이들의 문제는 우리 가족의 이야기였다. 당시에는 한 집 건너 한 집에 실직자가 없는 가정이 없을 정도였다. 또한 무료급식소에 오는 사람들에게 취업정보를 제공하거나 상담을 해 주거나 사례관리를 해 줄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무료급식에 참여하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하루일과가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갈 집이나 가정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다. 긴급구조가 필요했다. 특히 비가 온 날은 더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교회에서 잠을 재우곤 하다가, 결국 노숙인 쉼터를 만들게 되었다. 노숙인 쉼터를 만들자마자 정원을 초과하게 되었고, 가족을 동반한 이들 때문에 또 다시 여성과 가족을 위한 노숙인 쉼터를 만들게 되었다. 역시 여성 노숙인 쉼터도 정원을 초과했다. 그동안 산부인과, 장례식장, 기도원 등 다양한 곳에서 하루하루 거처하기가 힘들었던 이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 왔다. 쉼터가 만들어지고 공동생활을 하는 가족이 들어가면서 예배에 출석하는 사람들도 늘어갔다. 노숙인의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자녀를 동반한 아이들을 위해 무료탁아방과 공부방을 만들어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쉼터 식구들이 아이들을 돌봐 주어야 일터를 나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무료탁아방과 공부방이 만들어지고, 전담 선생님을 배정하여 아이들의 학습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하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공부방에 참여하는 아이들도 해인교회 주일학교에 출석해 주었다. 가난하게 자랐던 아이들이 교회의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아이들의 성격도 많이 좋아지고, 가정의 안정감도 높아졌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통합적으로 교육되는 것이 필요하듯 노숙인 쉼터 역시 통합교육의 효과가 높았다. 때론 교우들이 교우들 가정으로 아이들을 초청해서 더 큰 가족의 의미를 새길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갔다. 우리는 자연히 쉼터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고, 그들을 ‘식구’(食口, family)라고 불렀다.

그러나 노숙인 쉼터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장마철과 한겨울은 건축일이 중지되기 때문에 또 다른 일터를 찾아야만 하는 시간들이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안정적인 일터가 제공되어야만 했다. 일자리 제공이야말로 가장 큰 복지이고, 치유의 과정이었다. 쉼터 아저씨들에게 적합한 일을 찾다가 재활용센터를 구상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사회적 기업 계양구재활용센터라는 노숙인 최초의 사회적 기업이 탄생하게 되었다. 사회적기업 도농살림도 같은 전철을 밟았다. 때때로 어려운 문제가 늘 터져 나왔지만, 그런대로 기업을 통해 노숙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았고 결과적으로는 긍정적인 성과로 나타났다. 노숙인 쉼터의 년 평균 취업률이 95%가 넘는 것도 바로 이와같은 시스템이 구축되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노동부의 지원으로 노숙인취업센터가 설립되어 노숙인의 취업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다. 교회적으로도 노숙인 쉼터에 있는 식구들이 경제적 안정을 누리게 되면서 신앙적 안정을 누리게 되었고, 때론 자립하여 교회 주변에 정착하면서 교회의 일꾼이 되기도 하고 제직으로 활동하는 이들도 점점 늘어갔다.

다른 한편으로 여성 노숙인 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발견하게 된 것은 쉼터에 입소하기 전부터 여성들이 빈곤과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침 인천시의 도움을 받아 가정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소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가정폭력상담소를 통해

만나는 여성들과 가정들을 위해 가정사역과 가족치료라는 영역을 접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피난처에 오는 사람들만 보호하고 상담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나, 보다 적극적이고 예방적 차원의 캠페인도 진행했다. 또한 부부갈등으로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는 이들을 돕고 치유하기 위해 단계적 프로그램도 갖게 되었다. 여성 노숙인들을 돌봐왔던 아내 김영선 목사가 가정폭력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가족치료사의 과정을 밟으며 함께 도왔다. 또한 법원과 보호관찰소의 요청으로 가해자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도 갖게 되었다. 매월 평균 상담건수는 130여건 정도 되었는데, 생각보다 가정폭력의 문제는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히 이 일로 교회 내 여집사들이 전문적인 상담가 교육을 받고 실무자로 일하면서 교회는 가정사역의 실제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상대적으로 피해 여성들은 남성 노숙인들에 비해 교회내의 여성 신도들이 지지그룹이 되어 줌으로써 신앙적 회복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정착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른 교회의 분위기와는 다르게 교인들 중 이혼녀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이들은 없어 보인다. 또한 무료급식소와 세 곳의 쉼터, 그리고 피난처는 공동체의 비전을 갖게 해 주었다. 가진 것 없고, 의지할 곳 없는 이들이 서로 도와야 하고 서로 의지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공동의 생각과 비전이 생기게 되었다. 물론 교회는 이들의 생각과 미래에 대한 확신을 신앙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 뒤 쉼터에서 자립한 사람들이 월세집을 얻어 나가게 되었고, 주로 싼 월세집을 얻어 나간 사람들이 정착하는 곳이 쪽방지역임을 또한 알게 되었다. 쪽방지역은 크게 400세대가 족히 넘는 쪽방 밀집지역도 있었다. 쉼터에서 자립하여 쪽방으로 나가는 것과는 반대로 쪽방지역 주민들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쉼터로 다시 돌아오는 일들이 발생했다. 이러한 악순환의 연결 고리를 끊기 위해 쪽방지역에 쪽방상담소를 만들어 가난한 이들의 살림을 돌봐주었다. 이 사업도 노숙인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복지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여기에 무료급식과 푸드뱅크를 연결하여 먹을 것과 생필품을 나눌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도움을 줌으로써 적은 생활비로 생활해 나가는 이들을 도움으로써 스스로 자립할 기반을 만들어 줄 수 있었다.

해인교회와 내일을여는집은 지금까지 노숙인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실천을 감당했다. 또한 현재 우리사회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했고, 실제 교회와 지역의 주변에서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내일을여는집과 해인교회는 결코 간과하지 않았다. 일자리를 잃어가는 노인의 문제는 잠재적 노숙인 문제일 수 있고 사회적 문제였다. 선제적, 예방적 노숙인 복지 프로그램이 필요했다. 그래서 내일을여는집은 식당을 차려서 어르신들 6명의 일자리를 확보했다. 이것이 발전하여 현재는 36명이 일하고 있다. 볼펜 조립이나 펜시용품 납품과 같은 일을 하는 공동작업장에는 어르신들 50여명이 일을 한다. 실버택배, 경비, 가정도우미 등 20여개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만 1,270여명이다. 특히 우리 사회가 급속도로 경제성장을 했지만 노후준비가 전무한 이들에게 일자리 문제는 생명을 보호하는 문제였고, 고독한 이들에게 삶의 희망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문제였다.

한 예로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독거노인의 경우 하루 일과를 보면, 이 분은 신앙이 없어 종교활동은 하지 않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내일을여는집에서 노인일자리로 일을 시작하고, 점심때에는 교회에서 식사를 하고, 오후 4시에는 매일 푸드뱅크를 통해 인근학교에서 모아 온 밥과 찬을 제공받아 저녁과 아침을 해결한다. 그러니 3끼를 모두 해결 받는 셈이다. 노인일자리로 일을 하고 20만원을 받고, 실버자원협동조합에서 간간히 폐휴지를 주워 15만원 내외를 받고, 기초노령연금으로 20만원을 받아 생활한다. 문화 활동으로 상하반기 소풍을 가고, 몇 개의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그가 고백하길 해인교회와 목사님이 계셔서 너무 행복하다고 말한다.



지역의 노인들과 실직자, 그리고 고난 받는 여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감으로써, 교회는 지역공동체 운동의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지역의 문제가 곧 교회의 사명이 되었다. 지역주민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해인교회와 내일을여는집은 지역주민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으로 변해가고 있다.

의식주 문제를 넘어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

지난 19년 동안 해인교회와 내일을여는집은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를 끌어안고 해결하는데 매진해 왔다. 항상 집중하는 곳이 있으면 부족한 곳이 있기 마련이다. 언젠가 방송사 기자가 우리 아이들에게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우리 아이들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은 적이 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 가족들만 함께 여행해 보고 싶고, 우리 가족들만 식사도 해보고 싶다고 했다. 우리 교인들도 같은 맥락에서 느끼고 있는 부분이다. 그동안 교회가 사회복지선교에 앞장서면서 교인들의 복지나 심방은 좀 소홀하게 여겨진 점이 있다. 어쩌면 교회는 교회의 본질이나 교회의 존재의 이유를 들면서 교인들에게 항상 책무와 십자가만을 강조해 왔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이면에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올바른 신앙에 대한 믿음과 자부심은 그 어느 교회보다도 확고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몇 해 전에 교회는 특별한 경험을 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한 사람이 자립했다. 그는 모든 훈련과정을 잘 견디어 냈고, 안정적인 일자리와 직위도 얻었다. 모든 사람들이 모범적인 케이스라고 칭송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알코올에 다시 빠지고 그동안 모았던 자립기반을 한 두 달 만에 다 날렸다. 사회복지란 인간이 살아가는데 부족한 것을 채우고 장애가 되는 것을 걷어내는 일이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를 이끌어 가는 데는 한계가 분명했다. 인간의 문제는 사회적 문제를 넘어 영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

교회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 성령의 역사, 곧 성령의 활동을 절대적으로 갈망하게 되었다. 서비스 대상자나 사회복지사나 인간은 먹는 것, 잠자는 것, 일자리를 얻는 것 그 이상의 것을 갈망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교인들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이 과하면 번아웃(burn out)될 수밖에 없었다. 성령의 위로와 능력의 체험이 필요한 대목이다. 교회는 실무자들과 교인들을 사도행전 6장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사회에서 신망을 얻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디아코니아 일꾼으로 양육해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 과제가 되었다. 또한 재정적인 어려움이 늘 상존하지만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이겨내고 있다.

복지마을을 꿈꾼다!!!

지난 19년 동안 해인교회는 내일을여는집을 통해 4단계의 “긴급구조-상담과 사례관리-교육-재취업과 지역발전사업”을 한결같이 전개해 왔다. 긴급구조는 매일같이 노숙인이나 가정폭력상담,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했고, 상담은 일시적인 상담이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까지 진행했으며, 교육은 재취업을 위한 자동차 면허, 바리스타 교육, 한식과 양식 조리사 자격증 취득, 영양사 자격증 취득을 연계하고, 나아가 교양 사회교육이나 인문학 교육, 전문가 교육 등을 했다. 재취업 사업으로는 취업센터를 두고 지속적인 일자리 개발과 기업개발을 하여 연계하고, 지역사회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인을 통한 산림지킴이 사업이나 노숙인을 통한 재활용센터 사업을 전개해 왔다. 이제 우리 해인교회를 중심한 마을에는 1,300여명이 일자리를 얻어 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잠자리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잠자리를, 교육과 상담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교육과 상담을 줄 수 있는 사회안전망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이제 이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와 연대하여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노인일자리는 환경운동단체인 녹색연합과 연대하여 산(山)을 지키고, EM을 통해 내(川)를 지킨다. 노숙인이 운영하는 사회적기업 재활용센터는 지역에서 버려져 나오는 가구 등의 폐기량을 줄여주고, 주민의 세금을 절약해 준다. 노인일자리에서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착한 소비, 윤리적 소비와 연대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얼마 전에 계양구 사회복지협의회 회장과 사회적경제협의회 회장직을 겸직하게 되면서 우리 마을에 있는 70여 명의 사회복지사들을 초청해서 교회 마당에서 삼겹살 파티를 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사가 행복해야 서비스 대상자들이 행복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파티 중간 중간에 행운권 추첨도 하여 사회복지사들에게 작지만 선물도 전달했다. 복지사들 모두가 좋아했다. 이 때 당연히 행사를 준비하면서 사회적기업에서 돼지고기를 샀고, 지역자활센터에서 상추와 야채를 샀다. 사회복지실천이 사회적경제 영역으로 자연히 빨려 들어가게 했다. 사회적 경제 활동가들도 초청했다.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서로 연대하여 돕는 방법을 모색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최근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국장으로서 오랜 공무원 생활을 하던 은퇴 공무원이 섹스폰을 배워 매주 한 번씩 무료급식을 시작하기 전 공연을 한다. 신바람 난다. 사회복지 전문가-교회(종교단체)-지방자치단체(시청, 구청)-사회복지단체-사회적 경제단체-시민사회가 한데 어우러지기 시작했다. 우리 마을은 불편한 것이 있으면 해결할 곳이 있는 복지마을로 가고 있다.

이준모 목사: 서강대에서 독어독문학과 종교학을 전공하고, 한신대 신학대학원에서 성서신학을, 그리고 한신대 사회복지실천대학원에서 「종교계 사회복지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를 하였으며, 현재 고용노동부 전문특화기관인 기독교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다. 한신대, 세경대, 호원대, 경인여자대, 천안 나사렛대학 등에서 강의하였으며, 현재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 컨설팅, 사회복지세미나, 간증집회로 년 30회 이상 출강하고 있다. 또한 아내 김영선 목사와 해인교회의 공동목회를 하고 있으며, 「CBS의 새롭게 하소서」와 「수호천사」에 2년간 출연한 바 있으며, 지난 9월 제15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사회복지발전과 사회안전망 분야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주요 저서로는 「그 아름다운 두 번째 이야기」(한국기독교연구소, 2002)가 있고, 역서로는 「예수운동」(한국신학연구소, 1993)이 있다.

전환, 어렵지 않아요 먼 시골 마을에서 불어온 작은 바람

유희정 / 전환마을 네트워크 대표

‘전환’이라고 하면 거창하게 들리지만, 전 세계적 흐름이 된 이 운동은 아일랜드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시작됐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스스로 변화하고 주변과 연결될 때 세상은 조금씩 변한다.

글 소란 전환마을은평 대표

힘차게 시작된 21세기는 기후 변화와 직면했다. 지구는 점점 더워졌고, 과학자들은 2007년경 피크오일*을 예측했다. 예측은 빗나갔지만, 핵발전이나 타르샌드와 같은 에너지에 기대며 지구공동체는 한층 더 위협해졌다. 빙하는 녹고 홍수는 잦아졌으며 숲은 사라졌다. 동식물은 초 단위로 멸종되고 있다. 한편 자본주의는 민낯을 드러냈다. 돈이 지배하는 세계는 자비와 돌봄보다는 소비와 경쟁에 몰입했다. 개인의 집은 있어도 마을은 사라진 세상에서 사람들은 N개의 소비를 하는 N개의 오염원이 됐다.

그즈음 이 어마어마한 지구적 문제를 고민하는 이들이 있었다. 정부도 의회도 아닌, 아일랜드의 시골 마을 킨세일에서 퍼머컬처**를 공부하던 직업교육센터 학생들이었다. 그들은 자연의 순환을 따르는 마을 모델을 설계하고, 화석연료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에너지 자급 계획을 세웠다. 이 비전을 마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함께 하자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후 전 세계로 퍼져나간 ‘전환마을운동’이 시작됐다.

전환마을운동의 ‘전환’은 삶의 방식의 전환을 뜻한다. 현재와 같은 소비적이고 파괴적인 방식으로 는 더 이상 삶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인식에서 출발해, 자신과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부터 변화를 추구하는 생활 운동이다. 전환마을운동에 참여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하다. 마을에서 전환마을의 비전에 동의하는 사람을 모은다. 소규모 공부 모임으로 시작해 전환마을에 대해 알아간다. 그리고 지금 마을에 필요한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전환마을을 선언한다. 누구의 허가도 필요 없고 정해진 방법도 없다. 전환마을네트워크에 속한 전 세계 4000여 개 마을은 모두 이런 작은 프로젝트에서 시작한 곳들이다.

전환마을은평 역시 그렇게 탄생했다. 은평에서 생태적 의제를 가지고 활동하던 여러 단체와 사람들이 모여 전환마을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눴고, 2014년 11월 전환마을을 선언했다. 이후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고 마을 텃밭을 일궈 먹거리를 생산하고 있으며, 생태적인 삶의 방식을 체험하고 학습하는 교육 네트워크 속에서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마을을 보다 건강하게 꾸려가고 있다. 국가나 기업의 지원에는 기대지 않는다. 한국의 수많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 돈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사업이 끝나면 마을 역시 끝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전환마을은 더 이상 이런 투자 중심의 개발 사업으로는 마을을 복원하고 공동체를 연결할 수 없다고 본다. 더 많이 투자하여 더 많이 성장하고 더 많이

버는 모델에서 벗어나, 성장 없는 시대라는 흐름에 맞추어 삶의 태도와 욕망을 먼저 바꾸어야 한다고 믿는다. 성장 아닌 회복, 속도 아닌 지속, 지구를 위한 작은 행동이 중요한 사회, 공유 경제와 지역 자치가 실현되고 다양한 삶의 모습이 존중받는 사회를 전환마을은 꿈꾼다.

전환마을은평이 5년차를 맞이하는 요즘, 전환을 고민하는 사람들과 마을이 늘고 있다. 지난 2017년 2월, 이런 고민을 하는 이들이 모여 한국전환마을네트워크를 결성했다. 서로의 지혜를 보태면서 거침없이 상상하고 가보지 않은 길을 가보려 한다. 이 흐름이 커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이다. 한국은 마을 자치는 약한 반면 행정이 돈과 결정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후변화라는 악재가 빠르게 뒤쫓고 있기에, 결국 모든 마을이 전환마을의 길을 고민하게 될 것이다. 빠르게 도시의 배설구가 되어가는 시골에서는 더욱 스스로를 지킬 의제가 필요하다. 그러한 의제는 시골도, 도시도 '개발'이 아니라 '삶의 방식의 전환'뿐이다.

아일랜드의 시골 마을 킨세일의 작은 실천이 생면부지의 다른 마을 역시 바꾸어놓았듯,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스스로 변화하고 주변과 연결될 때 세상은 바뀐다. 전환이란 그물망의 한 코를 당신이 맡아주길 바란다.

*피크오일(peak oil): 전체 매장량의 절반을 써 버려 석유 생산이 줄어드는 시점.

**퍼머컬처(permaculture): 자연의 순환체계를 모방해 경작지와 주거지를 설계하여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의식주를 자급하는 삶의 방법이자 철학.

전환마을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나

웰컴 투 전환마을

친환경 에너지

사람을 모아 협동조합 형태로 태양광 발전을 하기도 하고, 가정에 소규모 발전기를 설치하기도 한다. 피크오일에 대처하기 위해 시작한 운동인 만큼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발전으로 에너지를 자급하는 것은 전환마을의 중요한 목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전환마을에서는 전기를 아껴 쓴다.

교육 공동체

전환마을의 시작은 보통 소규모 공부 모임이다. 함께 전환마을에 대해 공부하며 실현 방법을 고민하고 작은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퍼머컬처학교, 풀학교 등 학교의 형태를 띄기도 하는데, 수료한 사람이 다시 자발적으로 공부 모임을 만들며 공동체 내에서 교육이 끝없이 이어진다.

자발적 소모임

전환마을에는 자발적인 소모임이 많다. 함께 술을 빚기도 하고, 친환경 세제를 만들어 나눠 쓸 수 있게 마을에 비치하거나 전기 절약을 위한 소모임을 만들어 매달 누가 전기세를 가장 적게 내나 겨루기도 한다. 자립을 위한 삶의 기술을 나누고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것들은 힘을 모아 직접 생산해 본다.

마을 텃밭

대규모 생산·유통 체제에 가급적 기대지 않고 마을 텃밭에서 먹거리를 기른다. 직접 생산해 근거리

에서 소비하니 신선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포장재가 생기지 않는다. 전환마을에는 로컬푸드만을 이용해 건강한 요리를 내는 마을 음식점도 있다.

지역 화폐

지역 안에서만 사용되는 화폐는 돈과 달리 금고에 쌓아두어서는 가치가 없다. 교환될 때에만 제 기능을 하기 때문에 마을 안에서 빠르게 순환되어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한다.

명상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 가본 적 없는 길을 가야하는 전환마을운동은 타인과 수평적으로 잘 소통할 수 있는 건강한 자아가 중요하다. 명상과 마음 공부를 통해 개개인이 내적으로 성숙해지고, 그 성장을 바탕으로 다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간다.

국내의 전환마을운동

국내에도 전환마을을 고민하는 마을이 많아지고 있다. 전환도시 신촌 프로젝트가 2015년 시작됐고, 지난해 간디학교가 있는 충남의 금산숲속마을이 전환마을을 선언했다. 서울에도 마포의 성미산마을, 하자학교가 있는 영등포, 삼각산 재미난 마을이 있는 강북마을공동체 등 여러 마을이 전환마을을 고려 중이다. 또한 제천 덕산마을, 강화 진강산마을공동체, 과천 맑은샘학교 역시 동참하려 한다. 특히 성미산마을은 전환마을을 고민하는 마을 모임이 오래 전부터 있었고, 운영방식 역시 도시형 전환마을과 흡사하다. 다만 선언의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 조직의 뜻을 모으며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전환마을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전환마을 킨세일 www.transitiontownkinsale.org

전환마을 토트네스 <https://www.transitiontowntotnes.org>




세계전환마을네트워크 transitionnetwork.org

전환마을은평 www.facebook.com/transitioneunpyeong

한국전환마을네트워크 www.facebook.com/koreatransitionnetw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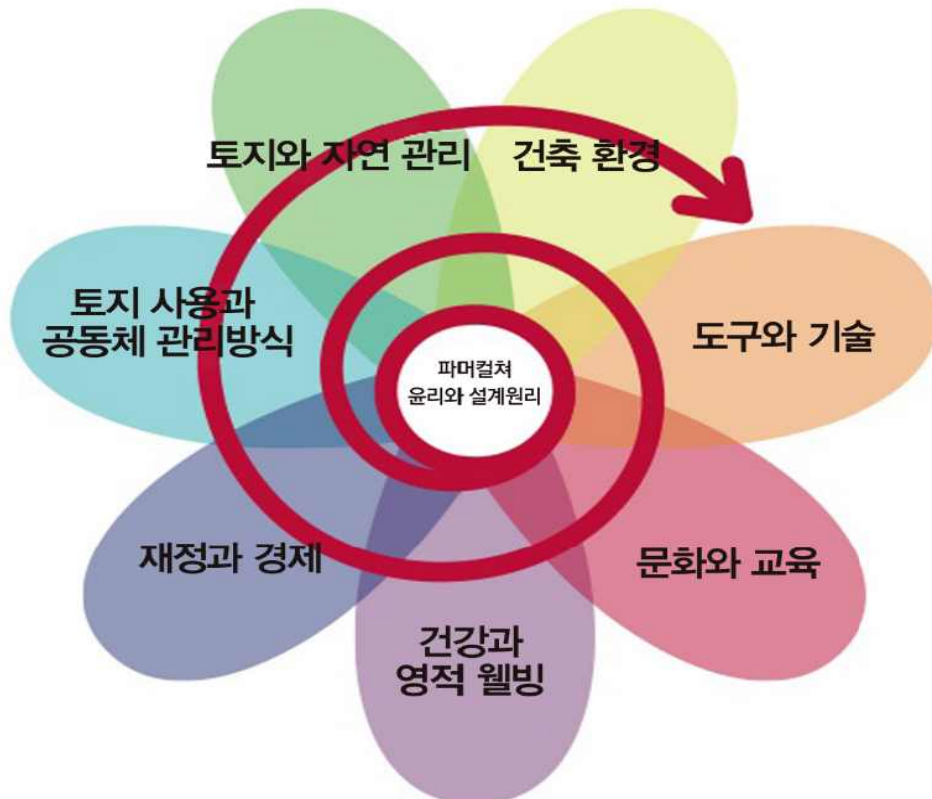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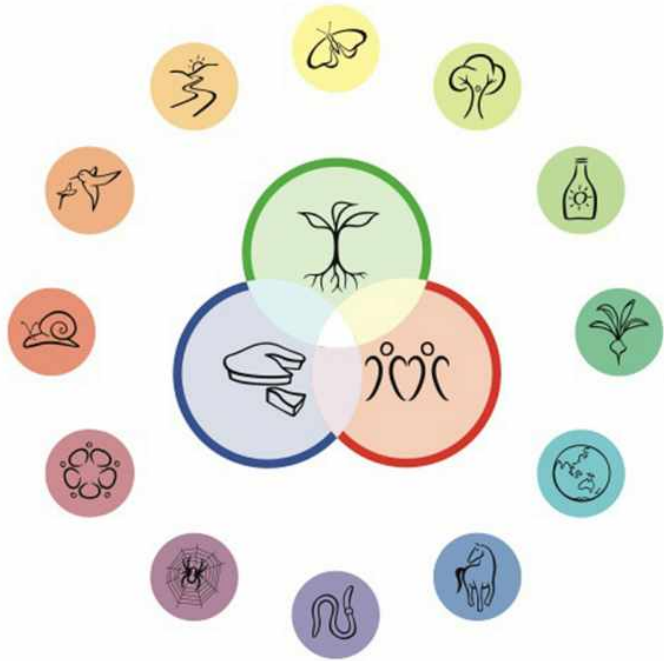
유희정(소란) 대표: 퍼머컬처디자이너로서 ‘잡초라도 충분한 풀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전환마을은평의 대표인데, 유럽에서 시작한 ‘전환마을운동(Transition Town movement)’을 한국에서 처음 시작한 이다. 전환마을은 대량생산과 소비를 지양하고 지역공동체 생활을 통해 자족가능한 마을로 만들자는 취지로 시작된 운동으로, 유대표는 2009년 영국의 전환마을 토트네스로 건너가서 2012년 한국에 돌아오기 전까지 경험했던 것들을 풀학교, 밥풀꽃식당, 퍼머컬처학교, 전환마을네트워크 등의 활동을 통해서 나누고 있다.

퍼머컬처의 윤리

-  땅을 보살피라
-  사람을 보살피라
-  공정하게 분배하라

퍼머컬처의 원리

-  관찰하고 상호작용하라.
-  에너지를 붙잡아 저장하라.
-  산출물을 얻으라.
-  자기 규율을 확립하고 피드백을 받아들이라.
-  재생할 수 있는 자원과 용역을 사용하고 소중히 여기라.
-  쓰레기를 만들지 말라.
-  패턴에서 시작해서 세부사항으로 설계해가라.
-  분리하기보다는 통합하라.
-  작고 느린 해결책을 사용하라.
-  다양성을 소중히 여기라
-  가장자리를 사용하고 주변부를 소중히 여기라.
-  변화를 창조적으로 활용하고 그에 반응하라





한국전환마을네트워크 Korea Transition Network

2017년 2월 14일 출범

한국의 전환마을/전환도시

전환마을은평/전환도시신촌/전환마을충무로
전환마을금산/전환마을순천향림골/전환마을대구성서/전환마을화성

전환학교연대(전환마을)

2016년 3월 1일 출범(16개 대안교육 현장)

경기 광명-꿈꾸는학교, 과천맑은샘학교(전환마을 과천을 꿈꾸는 사람들)

충청-제천덕산마을(제천간디학교)

인천-강화 진강산공동체(산마을고등학교)

서울-성미산 학교(성미산마을),

삼각산 재미난 학교(삼각산 재미난 마을)

하자 학교(영등포), 크리캔디학교(은평)

사회연대경제

경제민주주의 **공유생산**

지역공동체자산구축 **지역재생**

지역경제 **전환마을** 공유경제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회적 금융

로컬푸드사슬 주민자치활성화

회복력 식량주권회복

전환마을의 실천

1. 탈의존, 자급
2. 순환
3. 회복력
4. 상상력, 창조력
5. 비전공유
6. 관계의 전환
7. 다양성
8. 내적전환
9. 지역권력

전환마을은평이 소중히 하는 것

- 전환을 시작할 때 장애물을 낮추고 있음
(누구나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
- 무리하지 말 것. 피곤하면 휴식
- **Head Heart Hands** 의 균형을 항상 생각하고 있다.
- **즐기자**- 즐기고 있으면 사람을 끌어 당긴다.
- 서로를 존중하고 소중히 하는 것.
- 다양성을 존중.
- 새로운 것에 도전
- 항상 널리 Welco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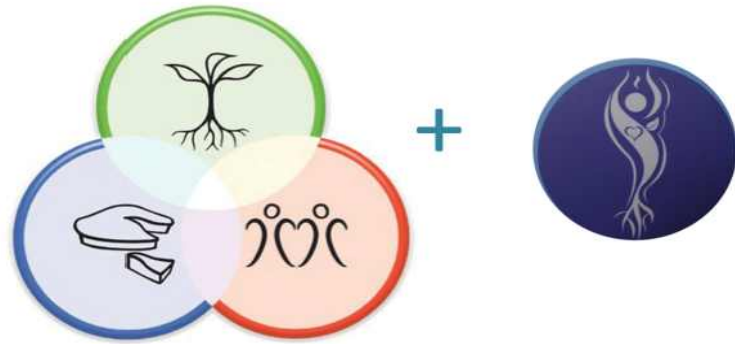
퍼머컬처의 네 가지 윤리원칙 *Permaculture Ethics*

→ 땅을 보살피라
Care earth

→ 사람을 보살피라
Care people

→ 공정하게 분배하라
Fair share

→ 영혼을 보살피라
Spirit care



만약 우리가
정부가 행동하길
기다린다면,
그것은 너무 느리고 더딜 것이다.

만약 우리가 개인적으로
행동한다면,
그것 또한 너무 작고 느리다.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로서 함께 행동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며
지금 이 바로 가장 적절한 때이다.



조현 기자의 <우리는 다르게 살기로 했다> 북 콘서트

오두막공동체(이재영장로)
사랑마을공동체(유장춘교수)
밝은누리공동체(최철호대표)

조현 기자: 한겨레신문 종교전문기자 및 논설위원이다. 1999년부터 영성, 치유, 공동체, 대안적 삶에 대해 주로 글을 주로 쓰며서 웰빙과 힐링, 공동체바람을 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한국 기독교의 숨은 영성가를 발굴한 <울림>은 감신대, 서울장신대, 장신대, 한신대 등 주요 신학대에서 '100대 안문 교양도서'로 선정되었으며, 한국출판회의에서 선정한 '우리시대 대표작가 300인'에 뽑히기도 했다. 영성가, 수도자, 인문학자 등과 함께 지친 마음을 쉬며 치유할 수 있는 휴심정(well.hani.co.kr) 운영자이다.

<우리는 다르게 살기로 했다>조현 기자 인터뷰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갈파했지만, 이 말이 사회 시스템으로 온전하게 구현된 적은 거의 없다. 기업들은 개인주의가 자본의 이득을 취하는 데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가능하면 가정을 나누고 있다. 혼밥, 혼술, 혼잠이 익숙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야 아파트가 더 팔리고, 가전제품은 더 쓰이고, 자동차는 더 팔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게 진리가 돼 버리자, 세상은 혼자 사는 이들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아이들은 더 태어나지 않는 사회가 됐다. 한 기자가 이런 흐름에 반기를 들고 외치고 있다. 《우린 다르게 살기로 했다》라는 책을 내고, 많은 강연 활동을 벌이고 있는 한겨레 종교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인 조현 기자다. 그를 만나봤다.

‘혼자 사는 세상’에 반기 들다

“우리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10년간 160조원을 쏟아 부었지만 아직 명확한 효과가 없습니다. 그사이 출산율은 최저치를 경신해 부부가 한 명도 낳지 않는 시대에 빠져들었습니다. 출산율만이 아닙니다. 최근 3년간 존속살인이 한 달 평균 4.5건으로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서도 4배 이상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부모에 대한 자식의 분노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의 해답을 공동체에서 봤기 때문에 책을 내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을 이해 못할 한국 사람은 없다.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영어, 수학 등의 사교육에 빠져든다. 아이들은 괴롭고, 그 엄청난 학비를 대야 하는 부모들은 부모대로 속이 탄다. 하지만 이 고통의 굴레를 쉽게 벗어나는 사람은 없다. 자기 자신의 욕심도 있지만, 타인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공포는 계속되고, 이 공포가 쌓이자, ‘무자식 상팔자’라는 말이 보편적 정서가 돼 버렸다. 이런 의식이 지속되면 지구상에서 한국인이 사라지는 것도 무시하지 못할 상황이 됐다.

저명한 고승 등 종교 지도자들의 뜻깊은 말을 전하던 저자가 가장 보편적인 사람들이 같이 모여 사는 모습에 빠진 것은 같이 사는 곳에 인생의 진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주로 홀로 사는 수도자, 수행자, 출가자들을 만났다. 오지 토굴과 암자, 봉쇄 수도원들을 찾아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외롭게 내면의 사욕편정과 싸우며 치열하게 구도하는 이들을 만났다. 이들은 인류에게 등대와 같은 것들을 만들었다. 하지만 진리를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고립의 결과로 외골수가 되거나 정신건강도 챙기지 못한 이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 인간은 인간 속에서 단련되고, 인간 속에서 치유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것을 가장 잘 구현하는 모습이 공동체라는 것을 알고, 공동체에 관심을 가졌다.”

저자가 공동체에 관심을 가진 것은 2000년 밀레니엄을 앞두고 일하던 신문사에서 ‘새 시대 문명 시리즈’로 공동체를 다룬 것이 계기였다. 이후 1년간 휴직을 하고 태국의 아속 공동체와 인도의 오르빌, 미국의 브루더호프, 일본 야마기시 공동체 등을 다녔고, 이후에는 한국의 공동체를 취재하거나 방문했다. 특히 딸과 함께 찾은 브루더호프 공동체는 아이들이 더 쉽게 공동체에 적응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됐다.

한국의 공동체도 다양한 모습을 만나기 시작했다. 탁구대 하나가 동네에 생기를 불러오기 시작해 이웃과 같이 사는 즐거움을 준 파주시 문발동 공방골목길을 비롯해 광주 광산구 본마공 등 이 책에서는 우리나라에 있는 열여덟 곳의 다양한 공동체를 소개한다.

그가 전하는 공동체의 장점은 아이가 즐겁고, 어른들이 편안하고, 노후에 대한 걱정이 덜하다는 것이다. 당대 도시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가장 큰 고통은 이 세 세대가 가진 문제다. 아이는 과외로 치이면서 세상은 물론이고 부모까지 피곤해진다. 부모는 아이의 교육비를 만들기 위해 미래까지 포기하고, 과외의 노예가 된다.

그런데 공동체들은 이런 문제에서 어느 정도 자유롭다. 대부분 한두 자녀를 두고 고립되는 가정이 아니라, 수십 명이 공동체에서 같이하면 아이들은 놀이와 세대별로 갖는 특성을 배울 수 있다. 공동체들 대부분은 육아를 돕는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과 가사를 병행할 수 있다. 아이들은 이런 가운데 사회를 배울 수 있다.

“요즘 귀농귀촌을 지원하는 곳이 많습니다. 우선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청년들은 돈은 조금 덜 벌어도 문화와 교육, 의료 등 삶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바랍니다. 노인들에게는 의료 등도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형태가 공동체입니다.”

이런 공동체들은 대부분 리더가 있는 종교를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더러 뜻이 맞는 지인들의 기획으로 만들어진다. 충북 보은군에 있는 ‘선애빌’의 경우 1가구당 5000만원 정도가 들었지만 좋은 자리에 터를 잡는 경우도 있고, 충남 홍성군에 있는 ‘풀무학교’ 공동체처럼 반세기가 넘는 공동체들도 있다. 또 마포 ‘성미산’이나 성남 남한산성에 있는 ‘논골’처럼 도시에도 공동체들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같이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재능을 나눌 수 있다. 다양한 직업이 있고, 음식·커피·여행 등을 모티브로 하는 경우도 있다.

《정의란 무엇인가》로 많은 반향을 일으킨 마이클 샌델 교수는 “공동체는 그들이 동료 시민으로서 소유하는 것일 뿐 아니라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도 나타낸다. 즉 그들이 선택한 관계가 아니라 그들이 발견하게 되는 소속이며, 그저 하나의 속성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이루는 구성요소”라고 말한다. 저자가 보여주는 다양한 공동체의 모습도 이 시대 우리가 되찾아야 할 존재임을 알 수 있다.

[출처] 종교 전문기자의 공동체 사랑을 담은 조현의 《우린 다르게 살기로 했다》작성자 글쟁이

MEMO

제 3회 한국교회 생명신학 포럼 '생명의 관점에서 본 기독교와 경제'



내 용

1. 개회예배

사회: 정명호 목사(혜성교회) | 대표기도: 박준범 선교사(엠 브릿지)

설교: 송준인 교수(청량교회, 총신대학교) | 축도: 서종석 목사(전 한국도농선교회 회장)

2. 환영

조현수 회장(총신대학총학생회) | 이박행 총무(한국교회생명신학포럼)

3. 주제발표

하나님나라와 경제 / 조성돈 교수(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논평: 정원범 교수(교회와사회연구소)

4. 사례발표

1) 생명살림운동과 협동조합 / 한경호 대표(한국기독교생명농업포럼)

사회: 황영익 소장(우리마을연구소)

2) 돌봄의 경제, 사회적기업 / 이준모 총괄본부장(기독교사회적기업지원센터)

사회: 구교형 상임이사(한국복음주의교회연합)

3) 지속가능한 경제, 전환마을운동 / 유희정 대표(전환마을 네트워크)

사회: 유미호 센터장(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5. 종합토론

사회: 이도영 목사(더불어숲동산교회)

6. <우리는 다르게 살기로 했다> 북 콘서트

사회 및 진행: 조현 기자

책에 소개된 공동체 中 경제 관련 이야기 초대 손님

오두막공동체(이재영장로), 사랑마을공동체(유장춘교수), 밝은누리공동체(최철호대표)

· 일시 : 2019년 6월 6일(목) 오전 10시~5시(포럼), 저녁6시~(북토크)

· 장소 : 총신대학교 종합관 세미나실

· 참가비 : 개인 30,000원, 학생 및 단체(10인 이상) 20,000원(교재, 식사 2식 포함)

하나 159-910015-21705 유미호(생명신학포럼) *입금 후 문자 주세요.

· 신청 : <https://forms.gle/AzgLVKbuvjTD6WyH7>

· 공동주최 : 한국교회생명신학포럼, 총신대학총학생회

· 협력단체 : 공동체지도력훈련원, 경주숲속휴양의원,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밝은누리공동체, 복내전인치유선교센터, 소통과대안, 오이코스학교, 우리마을연구소, 엠브리지,

한겨레신문출판사, 한국복음주의교회연합, 한국생태마을공동체네트워크

· 문의 : 010-8605-0675(이박행), 010-8966-1557(유미호)

· 개인 컵, 텀블러 지참해주세요.